

2013년 제6차 육아지원정책 포럼

어린이집 · 유치원 이용 아동의 사교육 실태

일시 | 2013. 12. 13. (금) 16:00-17:30

장소 | 육아정책연구소 대회의실

2013년 제6차 육아지원정책 포럼

□ 일시: 2013. 12. 13.(금) 16:00-17:30

□ 장소: 육아정책연구소 대회의실

16:00~16:10 개회 및 인사말

16:10~16:40 어린이집 및 유치원 이용 영유아의 사교육 실태
양미선 | 육아정책연구소 부연구위원

16:40~17:10 지정토론
염지숙 | 건국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김혜금 | 동남보건대학교 보육과 교수

17:10~17:30 자유토론 및 질의응답



2013년 제6차 육아지원정책 포럼

발 표

어린이집 및 유치원 이용 영유아의 사교육 실태

양미선 | 육아정책연구소 부연구위원

어린이집 및 유치원 이용 영유아의 사교육 실태*

양미선(육아정책연구소 부연구위원)

1. 서론

우리나라의 GDP 대비 가족관련 공공 부담비율은 1.01%로 OECD 평균 2.61%에 크게 못 미친다(OECD, 2012)¹⁾. 이에 따라 영유아 보육·교육에 대한 국가의 공적투자를 확대해 나가야 한다는 사회적 분위기가 고조되었고, 조기 투자의 효과성을 검증한 종단연구가 발표되면서 영유아기에 대한 국가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요구가 증가하였다.

이에 정부는 2004년 이후 보육료·교육비 전액 지원 대상을 점차적으로 늘려 2011년에는 소득하위 70%까지 보육료와 교육비를 전액 지원하고, 2012년부터는 모든 만 5세 유아에게 보육비·유아 학비를 지원하는 5세 누리과정을 시행하였으며, 어린이집 이용 만 0~2세에게 보육료 전액을 지원하였다. 2013년에는 누리과정을 3~4세로 확대하고 지원수준도 높였으며, 어린이집 및 유치원 미이용 아동에게는 소득에 관계없이 양육수당을 지원하는 등 사실상 0~5세 전면 무상보육·교육을 시행하였다.

이러한 정부의 적극적인 비용 지원 정책에도 불구하고 영유아 보육·교육비에 대한 부모 부담은 줄어들지 않고 있다. 어린이집과 유치원에서는 특별활동이 크게 증가하고 연령도 하향화되었으며, 부모들은 정부 지원금을 학원 등의 사교육에 재투자하고 있다(서문희·양미선, 2012). 서문희·양미선(2012)의 연구에서 영유아 1인당 총 보육·교육비용은 2009년 전국보육실태조사(서문희 외, 2009)에 비해 다소 줄었으나, 특별활동비는 2배 이상 증가하여 정부의 재정지원 정책 효과에 대해 확신을 가지기 어렵다.

한편, 2012년 기준 영유아 총 사교육비는 2조 1,743억원으로 GDP 대비 0.22%에 해당한다(서문희·양미선, 2012). 19조원에 이르는 초·중·고등학교 총 사교육비의 1/10 정도이나(통계청, 2012), 취학전 시기의 사교육은 예비학습 측면이 강하고 사교육에 참여하는 경향은 이후 초등학교 시기까지 연계될 가능성이 매우 크므로 조기에 관리될 필요가 있다. 또한 영유아의 인지적, 사회정서적 발달에도 직·간접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우남희·김현선·백혜정, 2005; 신의진, 2001; 홍은자, 2001)들이 보고되고 있어 영유아기 사교육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 이 글은 육아정책연구소가 2013년에 수행한 영유아 교육보육비용 추정연구(양미선·박진아·임지희·손창균, 2013) 내용의 일부이며, 어린이집 유치원 사교육 부분은 재분석함.

1) OECD(2012) Family Database에 제시된 우리나라 통계는 2009년 자료를 근거로 함.

더구나 2013년부터 보육료 및 유아 학비, 양육수당이 소득에 상관없이 모든 계층에 지원되는 사실상 무상보육이 이루어짐에 따라 사교육 시장은 더욱 팽창하고, 가격도 상승할 것이라는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다. 부모의 사교육비 부담은 저소득층 자녀의 사교육 기회를 제한하게 되어 국민 간의 위화감을 조성하고, 교육기회의 사회계층 간 격차를 더욱 벌어지게 할 수 있다. 이는 정부의 교육·보육 분야에 대한 투자의 소득 재분배 효과를 희석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저출산 대책으로서 제 기능을 하지 못한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어린이집 및 유치원 이용 영유아의 사교육 실태를 파악하는 데 일차적으로 목적을 둔다. 아울러 부모의 사교육비 부담 완화를 위한 정책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2. 어린이집 및 유치원 이용 아동 특성

제 2장은 어린이집 및 유치원 이용 비용을 알아보았다. 어린이집 이용 아동은 2,033명이고, 유치원은 863명이다.

가. 어린이집

아동 연령은 1월 1일 기준 보육연령으로 환산하여 연령별로 국공립, 사회복지법인단체, 민간, 가정어린이집 등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조사에 참여한 어린이집 이용 아동이 다니는 어린이집 유형은 민간개인어린이집이 52.5%로 절반을 차지한다. 다음으로 가정 18.3%, 국공립 13.6% 사회복지법인 10.2%, 법인단체 3.6%, 직장어린이집 1.4% 순이다.

〈표 1〉 조사 대상 아동 이용 어린이집 유형

구분	단위: %(명)							계(수)
	국공립	사회복지법인	법인단체등	민간	가정	직장	부모협동	
전체	13.6	10.2	3.6	52.5	18.3	1.4	0.4	100.0(2,033)
영유아구분								
영아	10.3	7.9	2.8	45.5	32.2	0.8	0.4	100.0(1,125)
유아	17.8	13.0	4.5	61.3	1.0	2.2	0.3	100.0(908)
$\chi^2(df)$	337.4(6) ^{***}							
아동연령								
0세	2.8	4.6	0.9	34.3	57.4	0.0	0.0	100.0(112)
1세	9.9	5.7	2.7	41.9	37.7	1.5	0.5	100.0(402)
2세	11.9	9.8	3.3	49.9	24.1	0.7	0.3	100.0(611)
3세	19.6	13.1	4.2	59.5	0.8	2.9	0.0	100.0(383)
4세	13.7	12.0	4.5	66.4	1.0	1.7	0.7	100.0(291)
5세	19.7	14.3	5.0	57.1	1.7	1.7	0.4	100.0(234)
$\chi^2(df)$	-							
2012년조사	20.7	7.8	1.9	52.0	16.7	0.9	0.1	100.0(1,957)

*** $p < .001$

나. 유치원

어린이집 이용 아동과 동일하게 아동 연령을 1월 1일 기준으로 환산하여 연령별로 분석하였다. 유치원 이용 유아 중 69.3%는 사립, 30.7%는 국공립유치원에 다닌다. 2012년 조사보다 사립은 10%p 줄고, 국공립은 늘었으며, 전체 국공립유치원 이용률 20.7%보다 높다. 아동연령별로는 연령이 많아지면서 유아의 국공립 이용비율이 높아 짐을 알 수 있다. 만5세는 국공립유치원 이용 비율이 37.5%이다.

〈표 2〉 이용하는 유치원 유형

구분	단위: %(명)		
	국공립유치원	사립유치원	계(수)
전체	30.7	69.3	100.0(863)
2세	-	100.0	100.0(4)
3세	24.2	75.8	100.0(193)
4세	27.2	72.8	100.0(304)
5세	37.5	62.5	100.0(362)
2012년 조사	20.5	79.5	100.0(677)

3. 어린이집 및 유치원 이용 영유아 사교육 이용과 비용

3절에서는 어린이집 및 유치원 이용 아동이 2013년 7월 한달동안 지출한 사교육비를 산출하였다. 사교육비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에서 실시하는 특별활동 및 방과후특성화프로그램비와 이에 필요한 교재교구비, 시간제 교육기관 총비용, 개인 및 그룹지도, 학습지와 인터넷 및 전화교육 이용 시 소요되는 비용이 포함된다. 어린이집 및 유치원 이용 아동이 지출하는 사교육 유형별로 비용을 산출하고, 아동 1인당 지출하는 사교육비와 이 비용이 가구소득 및 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 등을 분석하고자 한다.

가. 사교육 이용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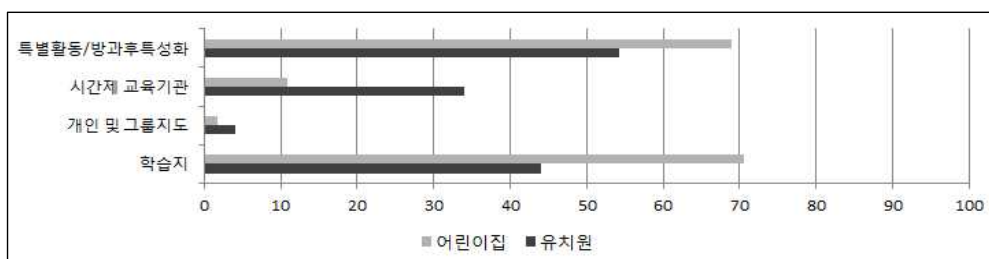
어린이집 및 유치원 이용 아동의 사교육 이용률을 기관별, 영유아 연령별로 살펴 보았다. 먼저, 어린이집 및 유치원 이용 영유아 64.6%가 특별활동 또는 방과후특성화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절반이 넘는 62.8%는 학습지를 이용하며, 나머지 17.7%는 시간제 교육기관, 2.4%는 개인 및 그룹지도를 받고 있다.

〈표 3〉 조사 대상 아동 사교육 이용 비율

단위: %(명)

구분	특별활동/방과후특성화 프로그램	시간제 교육기관	개인 및 그룹지도	학습지	(수)
전체	64.6	17.7	2.4	62.8	(2,896)
어린이집					
전체	68.9	10.8	1.8	70.6	(2,033)
0세	-	5.5	-	98.1	(112)
1세	28.1	4.2	0.2	90.5	(402)
2세	76.7	4.4	1.6	78.8	(611)
3세	87.0	9.1	2.9	62.0	(383)
4세	92.1	20.6	1.4	47.8	(291)
5세	92.0	31.8	3.8	44.7	(234)
유치원					
전체	54.3	34.0	4.0	44.1	(863)
3세	54.3	14.7	2.5	57.9	(197)
4세	55.7	25.9	3.6	44.3	(304)
5세	52.8	51.9	5.1	36.2	(362)

기관별로 보면, 특별활동·방과후특성화프로그램 참여율은 유치원보다 어린이집이 15%p 가까이 높고, 학습지도 어린이집이 70.6%, 유치원 44.1%로 어린이집 이용 아동이 월등히 많다. 그러나 시간제 교육기관이나 개인 및 그룹지도는 유치원이 어린이집보다 높은 수치를 나타낸다. 즉, 이용 비용이 저렴하고, 가정에서 쉽게 이용 가능한 학습지의 경우 어린이집 이용 아동, 교육비가 비싼 시간제 교육기관이나 개인 및 그룹지도는 유치원 이용 아동의 선호도가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1] 어린이집·유치원 이용 영유아 사교육 이용률

나. 특별활동 및 방과후특성화비

1) 어린이집

가) 참여 정도

특별활동은 어린이집 내·외부에서 외부강사가 오후 시간에 운영하는 별도 프로그램으로, 수익자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일부에서는 어린이집 운영비로 특별활동을 운영하는 경우도 있으나 대부분 부모에게 비용을 부담시킨다.

어린이집 이용 아동 중 특별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아동은 31%인 반면, 1개 이상의 특별활동을 한다는 비율은 69%를 차지한다. 이용 시 평균 특별활동 수는 평균 2.9개 이고 3개가 가장 많다. 2012년보다 특별활동 참여비율이 10%p이상 증가하였고, 2개와 3개 한다는 비율이 증가하였다. 연령별로는 3~5세가 평균 3개이고, 1세 2.2개, 2세 2.8개로 차이가 난다. 미참여 비율은 0세 100%에서 2세 23.3%로 급격히 감소하고, 4세 이후에는 10% 미만 수준으로 대부분의 유아가 특별활동에 참여한다고 볼 수 있다.

어린이집 유형별로는 미참여 비율은 영아 중심인 가정이 54%로 가장 높고, 민간은 반대로 참여비율이 74.3%로 높다. 참여 시 특별활동 수는 민간이 평균 3.2개로 가장 많다.

〈표 4〉 어린이집 특별활동 참여 여부

구분	참여					미참여	계(수)	이용 시 평균	
	1개	2개	3개	4개	5개이상				
전체	8.2	16.8	23.4	13.5	7.1	69.0	31.0	100.0(2,033)	2.9
아동연령									
0세	-	-	-	-	-	-	100.0	100.0(112)	
1세	8.2	9.0	7.5	2.7	0.7	28.1	71.9	100.0(402)	2.2
2세	9.0	22.0	27.4	12.9	5.4	76.7	23.3	100.0(611)	2.8
3세	9.4	22.5	25.8	20.9	8.4	86.9	13.1	100.0(383)	3.0
4세	7.2	15.8	35.7	20.6	12.7	92.1	7.9	100.0(291)	3.2
5세	9.2	16.4	31.5	18.5	16.4	92.0	8.0	100.0(234)	3.2
$\chi^2(df)/F$				840.8(25)***					17.7***
기관유형									
국공립	11.5	22.2	24.0	9.3	3.6	70.6	29.4	100.0(275)	2.6
사회복지법인	16.3	20.2	17.3	14.4	9.6	77.9	22.1	100.0(194)	2.8
법인단체등	16.7	16.7	43.1	4.2	2.8	83.3	16.7	100.0(71)	2.5
민간	5.9	13.3	27.1	18.6	9.4	74.3	25.7	100.0(1,100)	3.2
가정	5.1	21.4	13.1	3.5	2.9	46.0	54.0	100.0(358)	2.5
직장	23.3	6.7	16.7	13.3	-	60.0	40.0	100.0(27)	2.3
부모협동	14.3	28.6	-	14.3	-	57.1	42.9	100.0(8)	2.3
$\chi^2(df)/F$				-					16.0***
2012년조사	12.4	14.8	16.5		11.5	55.2	44.8	100.0(1,971)	-

*** $p < .001$

다음 <표 5>는 과목별 특별활동 참여비율을 나타낸다. 어린이집 이용 아동이 가장 많이 참여하는 과목은 영어이고, 다음으로 예체능과목의 참여비율이 높다.

연령별로는 과목에 따라 증감하는 경향을 나타내지만 연령에 따라 선호하는 프로그램이 크게 차이가 난다. 1세는 음악이 높지만 2세 이후는 영어가 단연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다음으로 체육, 음악 순으로 높다.

이용 어린이집 별로도 전반적으로 영어가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내지만, 영아 보육 중심인 가정어린이집은 체육이 66.5%, 음악 61.8%로 높다.

<표 5> 어린이집 과목별 특별활동 참여 비율

단위: %(명)												
구분	한글	수학	영어	과학	음악	미술	체육	교구	카드	통합	기타	계(수)
전체	7.0	2.9	79.3	9.3	51.6	30.3	67.4	28.1	0.6	6.1	2.4	(1,398)
아동연령												
0세	-	-	-	-	-	-	-	-	-	-	-	-
1세	2.7	-	33.6	0.9	61.9	20.4	57.5	30.1	0.9	10.6	0.9	(112)
2세	7.6	1.9	72.0	3.6	55.0	28.3	66.0	31.4	0.8	8.1	1.7	(474)
3세	9.0	3.6	87.7	9.3	45.8	33.8	65.6	25.7	0.3	5.1	2.7	(330)
4세	7.5	4.1	92.5	14.5	52.2	29.1	71.3	24.6	0.4	3.7	3.4	(267)
5세	3.7	4.6	89.9	19.4	47.2	35.9	73.3	28.0	0.5	3.7	2.8	(215)
$\chi^2(df)$	9.4(4) [#]	8.9(4) [#]	217.3(4) ^{***}	62.4(4) ^{***}	13.2(4) [*]	11.6(4) [*]	11.2(4) [*]	5.3(4)	-	12.8(4) [*]	3.4(4)	
기관유형												
국공립	4.6	3.6	86.7	13.2	36.5	14.7	61.9	25.9	-	7.1	-	(197)
사회복지법인	10.6	3.1	76.4	14.3	28.6	36.6	59.6	34.2	-	9.3	0.6	(150)
법인단체등	3.3	1.7	83.6	16.4	42.6	28.3	51.7	19.7	-	1.7	1.6	(59)
민간	7.4	3.4	86.4	7.9	58.8	35.1	71.4	28.1	0.9	3.8	3.9	(813)
가정	6.5	1.2	42.9	4.1	61.8	21.8	66.5	29.4	0.6	14.6	0.6	(159)
직장	-	-	58.8	11.8	41.2	11.8	82.4	11.8	-	-	-	(16)
부모협동	-	-	25.0	-	75.0	50.0	50.0	25.0	-	-	-	(4)
$\chi^2(df)$	-	-	-	-	79.0(6) ^{***}	44.0(6) ^{***}	22.0(6) ^{**}	-	-	-	-	
2012년조사	15.1	10.5	68.9	11.0	38.3	30.9	48.3	23.8	2.0	9.9		(1,046)

$p < .1$, * $p < .05$, ** $p < .01$, *** $p < .001$

<표 6>은 어린이집에서 실시하는 특별활동을 의무적으로 이용해야 하는지, 아니면 부모가 아동의 발달이나 흥미, 가정형편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지를 조사한 것이다.

특별활동 의무참여 비율은 과목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으나 전반적으로 절반 이상이 의무적으로 참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별활동 선택 시 선호하는 과목인 영어의 의무참여 비율이 63.6%, 음악 61.5%, 미술 66.5%, 체육 65.0%로 높다. 연령별로는 1세는 영어가 86.5%로 높고, 2세 통합활동, 3세 체육, 4세와 5세는 미술의 의무 이용 비율이 높다.

특별활동 의무 참여 비율은 이용 어린이집에 따라 뚜렷한 경향성을 나타내지 않았으나, 민간과 가정어린이집은 영어가 70.8%, 65.8%로 높다.

〈표 6〉 어린이집 특별활동 과목별 의무참여 비율

단위: %(명)

구분	한글	수학	영어	과학	음악	미술	체육	교구	카드	통합	기타
전체	53.1	46.3	63.6	61.5	61.5	66.5	65.0	50.6	87.5	69.0	60.6
아동연령											
0세	-	-	-	-	-	-	-	-	-	-	-
1세	66.7	-	86.5	-	65.7	73.9	73.8	55.9	100.0	45.5	-
2세	51.4	44.4	64.9	41.2	61.8	65.7	62.3	57.1	75.0	79.5	42.9
3세	48.4	41.7	57.7	61.3	57.8	58.0	64.8	46.5	100.0	47.1	77.8
4세	66.7	36.4	64.5	61.5	62.1	73.1	63.9	39.4	100.0	70.0	77.8
5세	25.0	60.0	65.1	71.4	62.1	71.8	68.6	50.0	100.0	100.0	42.9
기관유형											
국공립	33.3	71.4	35.9	53.8	45.1	51.7	50.0	27.5	-	71.4	-
사회복지법인	11.8	-	67.5	72.7	42.6	64.4	68.8	48.1	-	100.0	-
법인단체등	100.0	100.0	45.1	33.3	50.0	41.2	34.4	41.7	-	-	100.0
민간개인	63.8	44.4	70.8	68.3	66.5	71.0	69.3	53.4	100.0	58.1	63.3
가정	63.6	50.0	65.8	25.0	59.0	56.8	60.2	66.0	-	66.7	-
직장	52.6	45.2	70.0	100.0	100.0	100.0	92.9	50.0	87.5	69.4	60.6
부모협동	-	-	-	38.5	-	-	-	-	-	-	-
(수)	(94)	(40)	(1,124)	(135)	(733)	(437)	(942)	(393)	(11)	(85)	(31)

나) 비용

부모가 매월 특별활동 비용으로 어린이집에 지불하는 비용을 추정하였다.

어린이집 이용 아동 중 31%는 특별활동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다. 나머지 비용을 지불하는 아동 중 21.6%가 3~5만원 미만, 20.4%가 5~7만원 미만을 지불한다. 10만원 이상을 지불한다는 비율도 3.1%이다. 특별활동 비용을 지불하는 경우 월평균 비용은 53,000원이다. 2012년 조사에서는 비용 지불 시 평균 55,900원으로 다소 감소한 것을 알 수 있다.

비용을 낸다는 경우 금액은 대체로 연령과 정비례하여 0세 38,500원에서 점차 증가하여 3세 이후 5만 5천원을 상회한다. [그림 1] 과 같이, 비용을 내는 경우 그 금액이 2012년보다 전반적으로 감소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용 어린이집 유형별로도 차이를 보이는데,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다는 비율은 가정 54.3%로 높고 다음이 직장 41.4%, 국공립 29.4% 순이다. 비용을 낸다는 경우, 민간 60,900원, 가정 46,600원이고, 국공립어린이집은 이보다 적은 37,600원을 지불한다. 2012년 조사와 비교하였을 때 사회복지법인과 가정, 직장어린이집은 비용을 내는 경우 금액이 다소 늘어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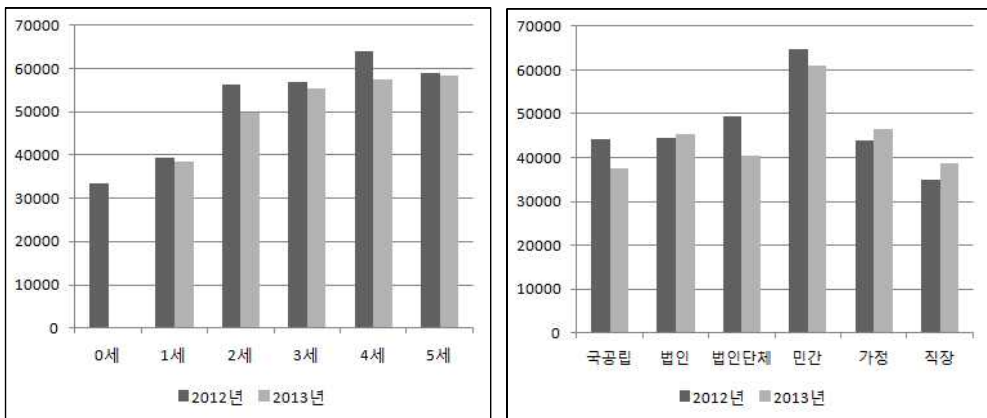
〈표 7〉 어린이집 특별활동비 분포와 평균

단위: %(명), 천원

구분	지불 안함	3만원 미만	3~5만원 미만	5~7만원 미만	7~10만원 미만	10만원 이상	계(수)	지불시 평균	2012년 조사
전체	31.0	9.8	21.6	20.4	14.0	3.1	100.0(2,033)	53.0	55.9
아동연령									
0세	100.0	-	-	-	-	-	100.0(112)	-	33.4
1세	71.9	9.7	9.7	5.5	3.0	0.2	100.0(402)	38.5	39.3
2세	23.3	10.9	25.2	25.6	13.5	1.5	100.0(611)	49.7	56.2
3세	13.0	14.3	25.5	21.4	19.0	6.8	100.0(383)	55.3	56.9
4세	7.9	8.9	27.1	29.1	22.3	4.8	100.0(291)	57.5	63.9
5세	8.1	5.5	28.4	30.1	22.0	5.9	100.0(234)	58.5	58.9
$\chi^2(d)/F$			835.4(25) ^{***}					17.1 ^{***}	10.7 ^{***}
시설유형									
국공립	29.4	21.1	34.1	11.8	3.6	-	100.0(275)	37.6	44.2
사회복지법인	22.3	14.1	27.2	27.2	8.7	0.5	100.0(194)	45.4	44.4
법인단체등	16.7	18.1	41.7	18.1	5.6	-	100.0(71)	40.5	49.4
민간	25.7	6.1	17.0	24.2	21.3	5.6	100.0(1,100)	60.9	64.8
가정	54.3	7.3	18.0	14.0	5.9	0.5	100.0(358)	46.6	43.8
직장	41.4	20.7	17.2	13.8	6.9	-	100.0(27)	38.7	34.9
부모협동	42.9	-	42.9	-	-	14.3	100.0(8)	55.0	-
$\chi^2(d)/F$			-					37.1 ^{***}	24.9 ^{***}
2012년조사	44.6	8.2	16.5	13.4	11.2	6.0	100.0(1,971)	55.9	

*** $p < .001$

주: '지불 안함'은 어린이집 특별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됨.



[그림 2] 아동연령 및 어린이집유형별 특별활동 비용

다) 교재교구

다음 <표 8>은 특별활동 교재교구 구입 시 그 금액을 추정한 것이다. 72.8%는 교재교구를 구입하지 않고, 27.2% 정도만 구입한다. 구입 시 금액은 월평균 7,800원으로 5천원에서 1만원 사이가 16.7%, 1~2만원 7.1%로 높다. 나머지는 1~2% 정도이다. 2012년 조사결과 18,200원과 비교하여 절반 이하 수준이다.

연령별로는 비용을 내지 않는 비율이 연령과 반비례하여 1세 92%에서 5세 62.1%로 감소한다. 연령별로도 5천원에서 1만원 사이가 가장 많다. 내는 경우 금액은 1세아 10,200원으로 가장 많고, 나머지 연령은 7~8천원 선이다.

어린이집 유형별로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다는 비율이 다소 차이를 보인다. 가정이가장 많고, 사회복지법인이 가장 적다. 내는 경우 그 비용은 5천원에서 1만원 정도이고, 민간과 가정어린이집이 8,600원, 9,800원으로 다른 어린이집 유형에 비해 많다.

<표 8> 어린이집 특별활동 교재교구비 분포와 평균

구분	단위: %(명), 천원					계(수)	지불시평균
	지불안함	5천원미만	5천~1만원미만	1~2만원미만	2만원이상		
전체	72.8	1.2	16.7	7.1	2.2	100.0(1,398)	7.8
아동연령							
0세	-	-	-	-	-	-	-
1세	92.0	-	1.8	5.4	0.9	100.0(112)	10.2
2세	77.5	1.3	13.2	7.0	1.1	100.0(474)	7.4
3세	72.2	0.3	20.1	6.0	1.5	100.0(330)	7.3
4세	66.4	0.7	19.0	9.0	4.9	100.0(267)	8.9
5세	62.1	3.7	24.2	6.8	3.2	100.0(215)	7.2
$\chi^2(df)$			-				2.4
시설유형							
국공립	84.8	-	12.2	2.5	0.5	100.0(197)	7.1
사회복지법인	55.9	2.5	37.3	4.3	-	100.0(150)	5.5
법인단체등	68.3	3.3	18.3	10.0	-	100.0(59)	6.2
민간개인	69.5	1.4	16.6	8.8	3.7	100.0(813)	8.6
가정	89.5	-	3.5	6.4	0.6	100.0(159)	9.8
직장	88.2	-	11.8	-	-	100.0(16)	5.0
부모협동	100.0	-	-	-	-	100.0(4)	-
$\chi^2(df)$			-				5.6***
2012년조사	90.1		2.0	4.5	3.4	100.0(1,971)	18.2

*** $p < .001$

라) 부담정도

어린이집에 매월 내는 특별활동 비용에 대한 부담 정도를 조사하였다. 부담된다고 응답한 비율은 조금 부담 39.8%, 매우 부담 5.9%로 부담된다는 비율이 45.7%이다. 부담 안된다는 비율은 23.8%이고 5점 척도로 평균 3.3점이다. 2012년 조사보다 부담된다

는 비율이 다소 증가하였고, 부담 정도도 높아졌다.

아동 연령별로는 연령 증가와 부담 정도가 정비례하는 경향을 보인다. 1세 3점에서 5세 3.4점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다. 어린이집 유형별로는 민간어린이집이 3.5점으로 가장 높고 그 다음이 사회복지법인, 법인단체 등으로 3.3점, 3.1점이다.

〈표 9〉 어린이집 특별활동 비용 부담정도

단위: %(명), 점

구분	전혀 부담 안됨	별로 부담 안됨	적당	조금 부담	매우부담	계(수)	평균 (5점)
전체	1.7	22.1	30.5	39.8	5.9	100.0(1,390)	3.3
아동연령							
0세	-	-	-	-	-	-	-
1세	0.9	29.1	40.0	29.1	0.9	100.0(110)	3.0
2세	1.3	24.3	33.8	37.0	3.6	100.0(473)	3.2
3세	1.8	24.3	26.4	40.2	7.2	100.0(329)	3.3
4세	3.0	14.6	29.2	44.6	8.6	100.0(266)	3.4
5세	1.4	19.5	26.5	44.7	7.9	100.0(212)	3.4
$\chi^2(df)F$			44.8(16) ^{***}				5.9 ^{***}
시설유형							
국공립	4.6	38.1	29.9	22.2	5.2	100.0(195)	2.8
사회복지법인	1.2	16.8	40.4	38.5	3.1	100.0(150)	3.3
법인단체등	-	31.7	36.7	28.3	3.3	100.0(59)	3.1
민간	0.9	14.7	28.7	48.0	7.7	100.0(810)	3.5
가정	4.1	33.7	29.6	29.6	3.0	100.0(156)	2.9
직장	-	82.4	5.9	11.8	-	100.0(16)	2.3
부모협동	-	50.0	50.0	-	-	100.0(4)	2.5
$\chi^2(df)F$							22.4 ^{***}
2012년조사	4.9	19.3	35.7	34.8	5.3	100.0(1,032)	3.1

*** $p < .001$

어린이집 비용 지불여부에 따라 평균 비용을 산출한 결과, 비용을 지불한다는 아동만을 산출하였을 때 월평균 83,000원을 지불하고,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 아동을 포함한 전체 아동을 기준으로 하였을 때에는 월평균 74,700원 정도이다. 2012년 조사에서는 지불아동과 전체아동이 평균 107,800원, 91,100원으로 약 2만원 정도 줄었다.

아동연령별로도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데, 비용 지불아동은 연령이 올라갈수록 보육비용과 특별활동, 특별활동 교재교구비 모두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들 비용을 합산한 총비용은 0세 14,100원에서 5세아 107,900원까지 차이가 난다. 특히 3세부터는 10만원 이상을 지출한다. 비용을 지불하는 아동뿐만 아니라 전체 아동도 보육비용, 특별활동비, 특별활동 교재교구비 모두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다.

〈표 10〉 어린이집 총 비용 평균

단위: 천원(명)

구분	지불 아동				전체 아동				(수)
	보육 비용	특별 활동	특별활동 교재교구비	계	보육 비용	특별 활동	특별활동 교재교구비	계	
전체	43.1	53.0	7.8	83.0	36.7	36.5	1.5	74.7	(2,033)
아동연령									
0세	14.1	-	-	14.1	3.2	-	-	3.2	(112)
1세	26.1	38.5	10.2	37.9	18.8	10.8	0.2	29.9	(402)
2세	35.7	49.7	7.4	73.9	31.5	38.1	1.3	71.0	(611)
3세	55.0	55.3	7.3	104.1	52.0	48.1	1.8	101.9	(383)
4세	54.2	57.5	8.9	109.1	52.6	53.0	2.8	108.2	(291)
5세	52.5	58.5	7.2	107.9	51.6	53.8	2.5	107.9	(234)
<i>F</i>	39.2***	17.1***	2.4#	119.5***	83.0***	163.3***	24.8***	27.2***	
기관유형									
국공립	22.9	37.6	7.1	53.8	18.3	26.5	0.8	45.5	(275)
법인	36.9	45.4	5.5	74.0	33.8	35.3	1.9	71.1	(194)
법인의외	30.1	40.5	6.2	65.2	29.8	33.8	1.6	65.2	(71)
민간	53.7	60.9	8.6	101.6	49.0	45.2	1.9	96.2	(1,100)
가정	24.1	46.6	9.8	50.0	16.4	21.3	0.4	38.2	(358)
직장	45.2	38.7	5.0	64.2	23.6	22.8	0.4	46.8	(27)
부모협동	200.8	55.0	-	203.5	172.6	30.9	0.0	203.5	(8)
<i>F</i>	72.0***	37.1***	5.6***	71.0**	82.8***	35.2***	10.5***	89.0***	

이용하는 어린이집별로는 교육비평균 비용 지불아동은 민간어린이집이 53,700원으로 가장 많다. 항목별로 모두 유의한 차이를 보인다. 전체 아동도 민간어린이집이 49,000원으로 가장 많고 어린이집별 차이가 유의하다.

2) 유치원

가) 참여 정도

유치원 이용 아동의 방과후특성화프로그램 이용 여부를 살펴본 겨로가, 유치원 이용 아동 중 53.9%는 1개 이상의 특성화프로그램을 하고 있다. 참여 시 평균 2.7개를 하고 있다. 프로그램 수별로 보면, 전체 아동의 11.9%는 1개, 15.7%는 2개, 12.1%는 3개, 4개 이상을 하는 아동은 14.2%이다. 유치원 이용 아동 중 46.1%는 방과후특성화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는다.

아동연령별로는 4,5세 평균 2.8개로 3세 2.5개보다 다소 많다. 프로그램에 참여한다는 비율은 4세가 3세보다 높다. 전반적으로 3,5세보다 4세아의 참여비율이 높다. 기관유형별로는 국공립유치원보다는 사립유치원에서 이용한다는 비율이 높다.

〈표 11〉 유치원 방과후특성화프로그램 이용 여부

구분	이용						미이용	계(수)	참여시 개수	
	1개	2개	3개	4개	5개 이상	소계				
전체	11.9	15.7	12.1	9.1	5.1	53.9	46.1	100.0(856)	2.7	
연령										
3세	11.1	19.7	14.1	6.6	3.0	54.5	45.5	100.0(197)	2.5	
4세	12.8	14.8	11.8	9.2	7.2	55.7	44.3	100.0(303)	2.8	
5세	11.6	14.2	11.3	10.4	4.3	51.9	48.1	100.0(356)	2.8	
$\chi^2(df)/F$	11.3(10)									2.1
기관유형										
국공립	3.4	4.6	4.2	4.2	0.8	17.2	82.8	100.0(246)	2.7	
사립	15.7	20.7	15.7	11.3	6.8	70.3	29.7	100.0(610)	2.7	
$\chi^2(df)/t$	206.5(5) ^{***}									-0.1
2012년조사	21.6	11.6	11.1		11.5	55.7	44.3	100.0(688)	-	

*** $p < .001$

유치원 이용 아동이 가장 많이 참여하는 방과후특성화프로그램은 어린이집과 마찬가지로 영어이다. 다음으로 예체능 과목의 참여 비율이 높고다. 2012년 조사와 비교하여 영어 비율이 61.3%에서 10%p 정도 늘었다. 이 외에 과학, 음악, 체육 등도 소폭 늘어났으나 한글, 수학은 줄었다.

아동연령별로 보면, 영어는 연령과 상관없이 가장 높은 참여비율을 나타낸다. 4, 5세보다는 3세 참여비율이 높다. 기관유형별로는 국공립이 영어, 과학, 음악, 체육에서 참여비율이 높고, 미술, 교구, 한글, 수학은 사립이 국공립보다 높다.

〈표 12〉 유치원 과목별 방과후특성화프로그램 이용 여부

구분	단위: %(명)											
	한글	수학	영어	과학	음악	미술	체육	교구	카드	통합	기타	(수)
전체	8.2	4.1	70.5	17.3	31.6	39.9	51.3	25.7	100.0	2.2	7.8	(474)
연령												
3세	4.7	0.9	73.8	13.1	22.2	39.3	50.5	20.6	100.0	1.9	8.4	(108)
4세	8.2	2.4	69.0	20.0	33.3	41.5	54.4	26.5	100.0	1.2	5.8	(171)
5세	10.3	7.5	69.9	17.2	35.5	38.7	48.9	28.0	100.0	3.2	9.1	(195)
기관유형												
국공립	2.2	2.2	75.6	37.8	42.2	34.1	53.3	13.3	100.0	0.0	2.3	(47)
사립	8.9	4.3	70.1	15.0	30.3	40.4	51.1	27.0	100.0	2.2	8.1	(427)
2012년조사	16.4	10.1	61.3	8.7	24.5	40.5	32.3	21.8	1.2	9.4	-	(378)

<표 13>은 유치원에서 실시하는 방과후특성화프로그램이 의무적으로 참여한 것인지 또는 부모의 선택에 의해 이루어졌는지를 나타낸다. 의무참여 비율은 영어가 54.3%로 높고, 다음으로 체육 51.1%, 음악 49.3%, 과학 46.3%, 교구 40.3% 순이고 나

머지는 30% 미만 수준이다. 영어의 경우, 의무적으로 참여해야 하는 비율이 높아 앞서 살펴본 이용 비율이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표 13〉 유치원 과목별 방과후특성화프로그램 의무참여 비율

단위: %(명)										
구분	한글	수학	영어	과학	음악	미술	체육	교구	통합	기타
전체	31.6	30.0	54.3	46.3	49.3	33.7	51.1	40.3	55.6	52.8
연령										
3세	20.0	-	69.6	64.3	66.7	33.3	69.8	36.4	50.0	55.6
4세	30.8	25.0	54.2	41.2	49.1	34.3	51.6	43.5	-	70.0
5세	35.0	33.3	45.0	43.8	43.1	33.3	39.6	39.2	80.0	41.2
기관유형										
국공립	-	-	30.3	16.7	21.1	6.7	34.8	16.7	-	50.0
사립	32.4	33.3	57.0	55.6	53.5	35.9	52.8	41.6	50.0	51.4
(수)	(38)	(19)	(326)	(81)	(146)	(185)	(237)	(119)	(10)	(37)

이용률이 높은 영어, 과학, 음악, 체육의 경우, 연령이 낮을수록 의무적으로 참여해야 하는 비율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그러나 한글, 수학과 같은 학습위주의 교과목은 반대로 연령이 많아짐에 따라 증가하여 5세가 가장 높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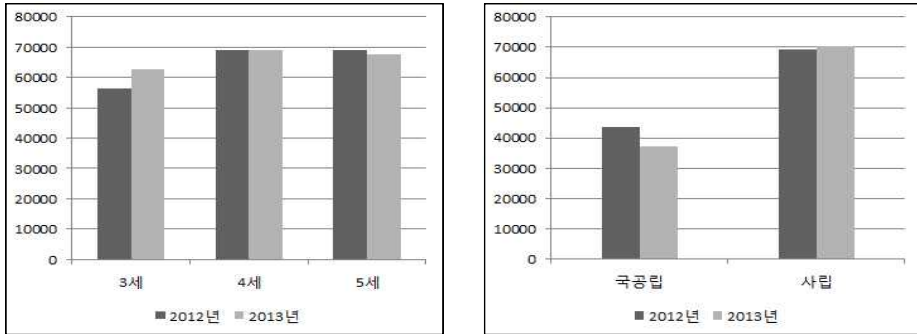
나) 비용

유치원 이용 아동 중 46%는 방과후특성화프로그램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다. 비용을 지불하는 아동 중 15.3%는 3~5만원 미만, 12.2%는 5~7만원 미만, 13.3%는 7~10만원 미만을 지불하고, 나머지는 10% 미만 수준이다. 비용을 지불할 경우 월평균 67,000원을 부담한다. 2012년 조사와 비교하여 비용을 내지 않는다는 비율이 44.6%에서 소폭 증가하였으나 비용은 65,600원에서 다소 늘었다.

〈표 14〉 유치원 방과후 특성화프로그램 비용 분포와 평균

단위: %(명), 천원								
구분	지불 안함	3만원 미만	3~5만원 미만	5~7만원 미만	7~10만원 미만	10만원 이상	계(수)	지불시 평균
전체	46.0	4.4	15.3	12.2	13.3	8.8	100.0(859)	67.0
연령								
3세	45.9	4.1	18.9	11.2	11.2	8.7	100.0(197)	62.8
4세	44.6	2.6	17.5	12.5	13.5	9.2	100.0(302)	69.1
5세	47.3	6.0	11.4	12.5	14.2	8.5	100.0(360)	67.5
$\chi^2(df)/F$				11.8(100)				0.8
기관유형								
국공립	82.8	4.2	9.5	2.3	0.8	0.4	100.0(246)	37.1
사립	29.6	4.4	17.9	16.5	18.9	12.8	100.0(613)	70.2
$\chi^2(df)/t$				225.8(5)***				-10.1***
2012년조사	44.6	4.9	13.6	12.5	14.1	10.3	100.0(688)	65.6

*** $p < .001$



[그림 2] 연령 및 기관유형별 방과후특성화프로그램 비용: 2012년, 2013년

아동연령별로는 3세보다 4, 5세의 비용 부담 정도가 높다. 3세가 평균 62,800원 수준이고, 4세와 5세는 각각 69,100원, 67,500원이다.

시설유형별로 보면, 국공립이 37,100원, 사립유치원 70,200원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인다. 국공립유치원은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다는 비율이 82.8%로 사립 29.6%보다 두 배 이상이다. 특히 사립유치원은 7~10만원 미만과 10만원 이상을 지불한다는 비율이 18.9%, 12.8%로 국립유치원 0.8%, 0.4%보다 월등히 높다.

다) 교재교구

유치원 방과후특성화프로그램 참여 시 교재교구 비용을 지출하였다는 응답자는 30% 정도이고, 비용 지불 시 금액은 13,100원이다. 2012년도 조사에 비해 1만원 정도 줄었다. 금액대별로 보면, 1~2만원 미만이 11.5%로 다수이고, 전년도에 비해 지불한다는 비율이 12.4%p 정도 늘어났다.

<표 15> 유치원 교재교구비 분포와 평균

구분	지불 안함	5천원 미만	5천~1만원 미만	1~2만원 미만	2만원 이상	계(수)	단위: %(명), 천원
							지불시 평균
전체	69.8	2.0	9.1	11.5	7.7	100.0(465)	13.1
연령							
3세	70.8	1.9	6.6	13.2	7.5	100.0(107)	12.1
4세	69.6	1.2	8.3	11.9	8.9	100.0(169)	12.7
5세	69.3	2.8	11.2	10.1	6.7	100.0(189)	13.9
$\chi^2(df)F$			4.0(8)				0.4
기관유형							
국공립	86.0	-	14.0	-	-	100.0(46)	6.5
사립	67.9	2.2	8.5	12.9	8.5	100.0(419)	13.4
$\chi^2(df)t$			-				-6.8***
2012년조사	87.6	2.3	3.2		6.9	100.0(688)	23.9

*** $p < .001$

아동연령로 보면, 교재교구비를 지불하였다는 비율이 30% 내외로 비슷하다. 비용을 지불할 경우 금액은 12,000~13,000원 선으로 차이가 없다. 기관유형별로는 사립유치원이 교재교구비를 지불하였다는 비율이 더 높다. 사립유치원은 비용 지불 시 월평균 13,400원으로 국공립 6,500원보다 유의미하게 높다.

라) 부담정도

다음은 앞서 살펴본 유치원 방과후특성화프로그램 참여 시 지출한 비용에 대한 부담 정도를 나타낸다.

방과후특성화프로그램 비용이 부담된다고 응답한 비율은 조금 부담 40%, 매우 부담 8.7%로 48.7%가 부담된다고 응답하였다. 부담정도는 5점 척도로 3.4점 수준이다. 유치원 교육비 부담정도인 평균 3.3점과 비슷한 수준이다. 방과후특성화프로그램 비용의 부담정도는 전년도 평균 3.5점과 거의 차이가 없다.

아동연령별로는 4세아가 5점 척도로 평균 3.5점으로 가장 높다. 이는 유치원 방과후특성화프로그램 비용이 4세아가 69,100원으로 3.5세에 비해 높게 나타난 것과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부담된다는 비율도 4세가 52.4%로 가장 높다.

이용하는 기관유형별로는 사립이 평균 3.5점으로 국공립 2.5점보다 1점 더 유의미하게 높다. 부담된다는 비율도 사립유치원이 52.8%로 국공립 13.3%보다 3배 정도 많다.

〈표 16〉 유치원 방과후 특성화프로그램비 부담 정도

단위: %(명), 점								
구분	전혀 부담 안됨	별로 부담 안됨	적당	조금부담	매우부담	계(수)	평균(5점)	
전체	1.9	15.6	33.8	40.0	8.7	100.0(470)	3.4	
연령								
3세	2.8	15.7	34.3	41.7	5.6	100.0(108)	3.3	
4세	-	12.9	34.7	42.4	10.0	100.0(170)	3.5	
5세	3.3	17.9	32.6	37.0	9.2	100.0(192)	3.3	
$\chi^2(df)F$			9.2(8)				2.2	
기관유형								
국공립	8.9	42.2	35.6	11.1	2.2	100.0(46)	2.5	
사립	1.2	12.5	33.5	43.4	9.4	100.0(427)	3.5	
$\chi^2(df)t$			48.4(4)***				-7.0***	
2012년조사	2.9	10.7	32.0	45.9	8.5	100.0(375)	3.5	

*** $p < .001$

유치원 비용을 지불한다는 아동과 비용을 지불하지 않은 아동을 포함한 전체 아동으로 나누어 유치원 월평균 총비용을 산출하였다.

전체 아동을 기준으로 산출하면, 유치원 이용 아동의 평균은 146,600원이다. 아동연령별로는 연령이 어릴수록 평균교육비 지출 비용이 많아서 3세가 119,400원, 4세 112,600원, 5세는 97,500원 순이다. 기관별로는 국공립이 11,300원에 비해 사립유치원

은 150,600원으로 13만원 이상 차이가 난다.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 아동이 소수이어도 편차가 커서 비용 지불 아동의 월평균 총 비용은 167,300으로 2만원 정도 차이가 난다. 2012년 조사보다 5만원 정도 줄어든 수치이다. 제 특성별 차이는 전체 아동과 동일하게 차이가 난다.

〈표 17〉 유치원 총 교육비

단위: 천원(명)

구분	지불 아동				전체 아동				(수)
	교육비	특성화 프로그램	특성화 교재 교구비	계	교육비	특성화 프로그램	특성화 교재 교구비	계	
전체	125.4	67.0	13.1	167.3	107.9	36.4	2.2	146.6	(863)
아동연령									
3세	136.5	62.8	12.1	174.5	119.4	34.2	2.0	155.8	(197)
4세	128.2	69.1	12.7	171.9	112.6	38.6	2.2	153.2	(304)
5세	116.3	67.5	13.9	158.9	97.5	35.7	2.4	135.7	(362)
<i>F</i>	3.2*	0.8	0.4	1.5	4.3*	0.7	0.3	2.6 [#]	
기관유형									
국공립	19.5	37.1	6.5	29.8	11.3	6.4	0.2	18.1	(246)
사립	152.9	70.2	13.4	204.5	150.6	49.6	3.2	203.3	(617)
<i>t</i>	-38.6***	-10.1***	-6.8***	-38.3***	-41.6***	-20.1***	-9.5***	-43.3***	

3) 학원 등 시간제 기관 이용 비용

가) 이용 기관 및 과목

어린이집 및 유치원 이용 아동 중 81.3%는 1개 기관, 15.1%는 2기관, 3.5%는 3기관 이상을 다닌다.

〈표 18〉 시간제 교육기관 수

단위: %(명), 개

구분	1기관	2기관	3기관 이상	계(수)	평균
전체	81.3	15.1	3.5	100.0(515)	1.2
아동연령					
0세	100.0	-	-	100.0(6)	1.0
1세	88.2	5.9	5.9	100.0(17)	1.3
2세	100.0	-	-	100.0(27)	1.0
3세	90.6	7.8	1.6	100.0(63)	1.1
4세	82.1	15.0	2.9	100.0(137)	1.2
5세	75.7	19.6	4.7	100.0(265)	1.3
$\chi^2(d)F$			-		2.9*
기관유형					
어린이집	86.8	10.9	2.3	100.0(218)	1.2
유치원	77.1	18.4	4.5	100.0(297)	1.3
<i>t</i>					-2.8**
0~5세 전체	82.7	13.8	3.5	100.0(658)	1.2
2012년조사	77.6	16.4	6.0	100.0(482)	1.3

*** $p < .001$

〈표 19〉 시간제 교육 교과목별 이용 비율

구분	단위: %(명)									
	한글	영어	수학	음악	미술	체육	과학	교구활동	종합보습	기타 (수)
전체	3.7	5.9	5.1	18.2	29.9	50.3	1.6	8.0	1.4	2.6 (515)
아동연령										
0세	-	-	-	-	-	60.0	-	50.0	-	- (6)
1세	-	-	-	17.6	29.4	35.3	-	11.8	-	18.8 (17)
2세	-	3.7	-	3.7	55.6	11.1	3.7	14.8	3.7	7.4 (27)
3세	3.1	11.1	9.4	6.3	31.3	39.1	1.6	6.3	3.1	1.6 (63)
4세	3.6	6.4	6.5	8.6	30.7	55.0	2.2	10.0	-	3.6 (137)
5세	4.7	5.1	4.3	28.3	27.1	55.4	1.2	5.4	1.6	0.8 (265)
기관유형										
어린이집	1.8	5.9	5.9	15.0	30.5	45.9	0.9	9.5	0.5	4.1 (218)
유치원	4.8	5.9	4.8	20.6	29.7	54.0	2.1	6.9	1.7	1.7 (297)
0~5세 전체	3.0	5.0	4.6	18.7	27.3	49.8	1.2	9.3	4.1	3.5 (662)
2012년조사	3.5	4.1	2.5	28.3	33.5	42.5	1.3	14.8	1.3	7.8 (234)

나) 이용 이유

<표 20>은 시간제 교육기관을 이용 이유를 나타낸다.

〈표 20〉 시간제 교육 이용 이유

구분	단위: %(명)								
	자녀가 원해서	재능소질 개발	선행 학습	교육 프로그램	남들이 다 해서	주변 적극 추천	자녀 돌봐 줄 사람 없어서	기타	계(수)
전체	36.3	37.5	5.8	8.7	1.7	1.4	4.9	3.7	100.0(515)
아동연령									
0세	16.7	83.3	-	-	-	-	-	-	100.0(6)
1세	11.8	41.2	-	23.5	11.8	-	-	11.8	100.0(17)
2세	29.6	25.9	-	33.3	3.7	7.4	-	-	100.0(27)
3세	31.7	41.3	1.6	15.9	1.6	-	4.8	3.2	100.0(63)
4세	40.9	37.2	2.2	8.0	1.5	2.2	2.2	5.8	100.0(137)
5세	37.7	36.6	9.8	4.2	1.1	0.8	7.2	2.6	100.0(265)
기관유형									
어린이집	34.4	36.7	4.6	12.4	1.4	2.3	4.6	3.7	100.0(218)
유치원	37.7	38.0	6.7	6.1	2.0	0.7	5.1	3.7	100.0(297)
0~5세 전체	29.2	37.8	5.2	13.8	3.2	2.1	4.0	4.7	100.0(661)
2012년조사	18.1	47.9	6.1	16.3	4.7	3.3	1.6	2.0	100.0(464)

재능소질 개발과 자녀가 원해서가 36~37%로 다빈도이고, 나머지는 10% 미만 수준이다. 연령별로 보면, 재능소질개발을 위해서는 연령이 어릴수록 그 비율이 높고, 자녀가 원해서는 연령이 많아질수록 높아지는 경향을 보인다. 교육프로그램이 좋아서는 1, 2세가 다른 연령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다.

기관유형별로 보면, 전체 응답비율과 유사하나 어린이집은 교육프로그램이 좋아서 시간제 학원을 이용한다는 비율이 유치원보다 높다.

다) 비용

<표 21>은 시간제 교육기관에 지불하는 비용을 나타낸다. 시간제 교육기관 이용 시 월평균 지출비용은 96,200원이다. 0~5세 전체 이용 비용보다 1만원 정도 높다. 비용 구간별로는 9~12만원 미만 35.8%로 다빈도이고, 7~9만원과 3~5만원이 10~14%대이며, 나머지는 10% 미만 수준이다.

연령별로는 3~5만원 미만이 가장 많고 연령이 적을수록 그 비율이 높아진다. 5세는 20만원 이상이 10.5%로 높다. 월평균 비용은 연령과 비례하여 증가한다.

기관별로는 9~12만원 미만이 30%대로 높다. 다음으로 어린이집은 5만원 미만이 많지만, 유치원은 20만원 이상이 11.3%로 높다. 월평균 비용도 유치원이 유의미하게 높다.

<표 21> 시간제 교육비 분포와 평균

구분	단위: %(명), 천원								계(수)	평균
	3만원 미만	3~5만원 미만	5~7만원 미만	7~9만원 미만	9~12만원 미만	12~15만원 미만	15~20만원 미만	20만원 이상		
전체	9.4	14.7	6.8	10.8	35.8	9.2	5.3	8.0	100.0(515)	96.2
아동연령										
0세	-	83.3	-	-	16.7	-	-	-	100.0(6)	46.2
1세	5.9	76.5	11.8	-	-	5.9	-	-	100.0(17)	42.5
2세	11.1	25.9	7.4	7.4	29.6	11.1	7.4	-	100.0(27)	77.5
3세	14.1	29.7	10.9	6.3	17.2	12.5	6.3	3.1	100.0(63)	75.5
4세	13.7	12.9	8.6	11.5	35.3	6.5	2.9	8.6	100.0(137)	90.5
5세	6.2	5.0	4.7	12.8	44.2	10.1	6.6	10.5	100.0(265)	111.1
<i>F</i>										8.4***
기관유형										
어린이집	10.4	19.5	6.8	10.4	34.4	9.5	5.0	4.1	100.0(218)	85.4
유치원	8.9	11.0	6.9	11.0	36.4	8.9	5.5	11.3	100.0(297)	104.4
<i>t</i>										-3.3**
0~5세전체	11.5	23.2	7.5	9.5	28.9	7.6	4.6	7.3	100.0(662)	87.2
2012	5.0	27.9	7.4	13.5	22.8	6.8	7.0	9.7	100.0(482)	94.8

*** $p < .001$

교육비와 교재교구비를 포함한 시간제 교육기관 이용 시 월평균 지출 비용은 101,300원이고, 표준편차는 66,800원이다. 최대는 512,000원까지 부담한다. 0~5세 전체 이용 비용보다 다소 높은 수준이다. 연령별로는 연령이 많아짐에 따라 비용도 증가한다. 0세가 53,100원으로 가장 적고, 5세가 115,800원으로 가장 많다. 기관별로는 유치원이 104,400원, 어린이집 85,400원으로 유치원 이용 아동의 비용 지출이 크다.

〈표 22〉 시간제 교육 총 비용 평균

단위: 천원(명)

구분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수)
전체	101.3	66.8	5.0	512.0	(513)
아동연령					
0세	53.1	25.9	38.0	115.0	(6)
1세	50.8	29.7	13.3	156.9	(17)
2세	88.0	52.4	11.3	216.7	(27)
3세	82.4	53.7	10.0	274.0	(63)
4세	93.8	63.4	5.0	420.0	(137)
5세	115.8	71.1	10.0	512.0	(263)
<i>F</i>	8.4***				
기관유형					
어린이집	85.4	51.9	3.3	300.0	(218)
유치원	104.4	71.2	10.0	509.0	(295)
<i>t</i>	-3.3**				
0~5세 전체	92.8	67.6	5.0	519.7	(662)
2012년 조사	102.7	81.6	10	640	(481)

주: 교재교구비 지출규모는 양미선 외(2013). 영유아 교육보육비용 추정연구:2013 참고.

*** $p < .001$

라) 교육비 부담 정도

〈표 23〉은 시간제 교육 비용 부담 정도를 5점 척도로 산출한 것이다. 수학이 5점 만점에 평균 3.8점으로 부담 정도가 가장 높고, 종합보습이 3.6점, 영어 3.5점이며 이 외는 2.6~3.4점 사이에 분포한다. 과학과 교구활동이 각각 2.9점, 2.8점으로 낮다. 0~5세 전체 아동과 부담 정도가 유사하나 종합보습은 다소 높은 수준을 나타낸다.

아동 연령별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난 과목은 음악과 미술, 교구활동이다. 경향성이 뚜렷하지 않으나 미술은 연령이 많아지면서 비용 부담정도도 높아지고, 교구활동은 2, 3세 가장 높다가 다시 낮아지는 경향을 보인다.

〈표 23〉 시간제 교육 교과목별 비용부담 정도

단위: 점

구분	한글	영어	수학	음악	미술	체육	과학	교구활동	종합보습	기타
전체	3.1	3.5	3.8	3.4	3.2	3.3	2.9	2.8	3.6	2.6
0세	-	-	-	-	-	3.0	-	2.4	-	-
1세	-	-	-	2.0	2.4	2.8	-	1.5	-	2.6
2세	-	4.0	-	3.0	3.4	2.7	4.0	3.4	2.0	3.5
3세	1.8	3.3	4.2	3.4	2.7	3.1	3.0	3.2	4.0	3.0
4세	3.0	4.0	3.4	3.0	3.2	3.3	3.0	2.8	-	2.3
5세	3.3	3.2	4.0	3.5	3.3	3.4	2.3	2.8	3.7	2.4
<i>F</i>	1.3	1.3	2.1	2.9*	3.2*	1.6	0.9	2.3#	0.4	0.9
0~5세 전체	3.0	3.4	3.8	3.3	3.2	3.2	2.9	2.8	3.1	2.8
2012년조사	3.2	3.8	3.1	3.5	3.3	3.3	3.1	3.2	2.6	-

*** $p < .001$, * $p < .05$, # $p < .1$

4) 개인·그룹 지도

개인·그룹지도는 인지적인 학습을 목적으로 특정 개인이 가정을 방문하거나 아동이 개인 가정을 방문하여 개별 또는 그룹으로 교육을 받는 경우로, 수학, 영어, 논술 등 인지적인 학습 외에 음악, 미술, 체육 등의 예체능 교육이 이루어진다.

가) 이용 특성

개인 및 그룹지도로 가장 많이 이용하는 교과목은 영어와 미술로 27.1%, 26.1%이다. 교구활동이 다빈도인 0~5세 전체 아동 비율과 다른 결과를 보여준다. 다음으로 교구활동과 한글이 18% 수준이다.

〈표 24〉 개인·그룹 지도 이용

구분	단위: %(명)								
	한글	영어	수학	음악	미술	체육-	과학	교구활동	기타 (수)
전체	18.6	27.1	14.3	11.4	26.1	5.7	1.4	18.8	4.3 (66)
아동연령									
1세	-	-	-	-	100.0	-	-	-	- (1)
2세	20.0	36.4	-	-	10.0	-	-	50.0	- (9)
3세	6.3	6.7	12.5	12.5	43.8	18.8	-	6.3	6.3 (15)
4세	6.3	26.7	6.3	18.8	53.3	-	-	20.0	6.3 (15)
5세	33.3	35.7	25.9	11.1	3.7	3.7	3.7	14.8	3.7 (26)
기관유형									
어린이집	22.2	31.4	16.7	5.6	30.6	8.6	2.8	14.3	- (33)
유치원	17.1	22.9	14.3	17.6	20.6	2.9	-	25.7	8.8 (33)
0~5세전체	16.5	25.3	12.5	12.5	25.6	6.2	1.2	26.2	3.8 (75)
2012년조사	12.0	11.8	4.3	18.3	20.4	12.9	-	62.5	6.5 (101)

사례수가 소수이나 연령별로 보면 아동 연령별로 보면, 5세는 한글, 영어, 수학, 3, 4세는 미술이 이용 비율이 높다.

기관별로 보면, 어린이집은 영어, 미술, 한글 순이며, 유치원은 교구활동, 영어, 미술 순으로 이용 비율이 높다.

나) 이용 이유

개인 및 그룹지도 이용 이유로, 재능소질 개발이 50.0%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자녀가 원해서 21.4%, 교육프로그램 17.1% 순이다. 초등학교 선행학습은 7.1% 정도이다. 0~5세 전체 비율과 유사하다.

연령별로는 조사된 사례수가 소수이나 연령이 낮을수록 재능소질 개발이 높고, 특히 5세는 초등 선행학습과 교육프로그램이 다른 연령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다.

〈표 25〉 개인·그룹 지도 이용 이유

							단위: %(명)
구분	자녀가 원해서	재능소질 개발	초등 선행학습	교육 프로그램	남들이 다해서	기타	계(수)
전체	21.4	50.0	7.1	17.1	1.4	2.9	(66)
아동연령							
1세	-	100.0	-	-	-	-	(1)
2세	30.0	60.0	-	10.0	-	-	(9)
3세	31.3	43.8	6.3	6.3	6.3	6.3	(15)
4세	6.3	68.8	6.3	18.8	-	-	(15)
5세	22.2	37.0	11.1	25.9	-	3.7	(26)
기관유형							
어린이집	28.6	42.9	5.7	14.3	2.9	5.7	(33)
유치원	14.7	55.9	8.8	20.6	-	-	(33)
0~5세 전체	21.8	48.7	6.4	19.2	1.3	2.6	100.0(75)
2012년 조사	16.1	48.4	9.7	19.4	2.2	2.2	100.0(101)

다) 비용

개인·그룹지도 총 비용은 평균 125,900원이다. 표준편차가 96,100원이고 최대값은 59만원이다. 0~5세 전체 영유아의 총 비용과 큰 차이가 없다. 연령별로는 5세 154,500원, 4세 129,100원으로 가장 많고 3세아가 86,000원 수준으로 가장 낮다. 기관별로는 유치원이 136,800원, 어린이집 115,300원으로 유치원이 이용 비용이 더 많다.

〈표 26〉 개인·그룹 지도 총 비용 평균

					단위: 천원(명)
구분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수)
전체	125.9	96.1	13.3	590.0	(66)
아동연령					
1세	100.0	0.0	100.0	100.0	(1)
2세	107.8	72.7	30.0	243.3	(9)
3세	86.0	37.0	25.0	153.0	(15)
4세	129.1	89.6	40.0	370.0	(15)
5세	154.5	122.6	13.3	590.0	(26)
<i>F</i>	1.4				
기관유형					(33)
어린이집	115.3	80.4	25.0	370.0	(33)
유치원	136.8	110.1	13.3	590.0	(34)
<i>t</i>	-1.0				
전체	128.2	93.8	13.3	590.0	(75)
2012년조사	126.7	106.7	12	660	(101)

라) 부담정도

비용 부담 정도를 5점 척도로 보면 교구활동 비용이 5점 척도에서 4.2점으로 가장 부담 정도가 크고, 체육을 제외하고는 3.3~3.9점 사이에 분포한다. 0~5세 전체 비율과

유사하다. 아동연령별로는 미술 과목만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1세가 가장 부담이 크고, 5세가 적다.

〈표 27〉 개인·그룹 지도 비용 부담정도

								단위: 점
구분	한글	영어	수학	음악	미술	체육	교구활동	기타
전체	3.8	3.9	3.7	3.5	3.5	2.8	4.2	3.3
1세	-	-	-	-	4.0	-	-	-
2세	3.5	4.3	-	-	3.0	-	4.2	-
3세	4.0	3.5	3.0	2.5	3.3	2.7	5.0	3.0
4세	4.0	4.3	4.0	4.0	3.8	-	4.3	5.0
5세	3.8	3.7	3.9	3.7	2.0	3.0	3.8	2.0
F	0.2	0.7	0.9	1.0	0.9 [*]	0.3	0.7	-
0~5세 전체	3.8	3.9	3.7	3.3	3.4	2.8	4.1	-
2012년조사	3.4	3.5	3.0	3.2	3.4	4.0	3.4	2.1

5) 학습지 이용

학습지는 인쇄물로 된 학습교재가 매주 또는 한 달에 한번 정기적으로 가정에 서비스 되어 부모 등이 직접 교육을 시키거나 교사가 1주일에 1~2회 정도 정기적으로 가정에 방문하여 아동의 학습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교육하는 방문형 지도 등이 포함된다.

가) 이용 특성

학습지 이용 아동의 연령별 분포이다. 아동의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학습지 이용률도 증가한다. 5세가 33.0%로 높다. 다음으로 3, 4세가 21.3%, 29.9%로 높다. 3~5세의 학습지 이용 비율은 0~5세 영유아 전체 비율보다 다소 높다.

기관별로 보면, 어린이집은 2세 이후 20%대로 급격히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유치원은 3세 17.4%에서 4세 35.6%로 두배 늘어나고 5세 47%로 절반 가량이 학습지를 이용한다.

〈표 28〉 학습지 이용 아동 연령 분포

		단위: 명(%)						
구분		0세	1세	2세	3세	4세	5세	전체
전체	이용자수	2	37	131	228	318	355	1071
	(비율)	(0.2)	(3.5)	(12.1)	(21.3)	(29.9)	(33.0)	(100.0)
어린이집	이용자수	2	37	131	146	151	129	596
	(비율)	(0.3)	(6.3)	(21.7)	(24.4)	(25.4)	(21.9)	(100.0)
유치원	이용자수	-	-	-	82	167	226	475
	(비율)	-	-	-	(17.4)	(35.6)	(47.0)	(100.0)
2013년 0~5세전체	이용자수	12	61	144	233	329	365	1,144
	(비율)	(1.0)	(5.4)	(12.6)	(20.3)	(28.9)	(31.9)	(100.0)
2012년	이용자수	7	62	139	240	290	268	1,006
	(비율)	(0.7)	(6.2)	(13.8)	(23.9)	(28.8)	(26.6)	(100.0)

학습지 과목별 이용률은 한글이 82.1%로 높고, 가장 많고, 수학 44.8%, 통합활동 10.2%, 영어 9.6%이다. 0~5세 전체 아동과 비교하면 한글, 영어, 수학 등 주요 과목 이용 비율이 다소 높게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통합활동 이용 아동은 연령에 따라 감소하며, 한글, 영어, 수학 학습지 이용은 증가한다. 1~2세 아동은 통합활동과 교구 학습지 이용률이 높게 나타났다.

〈표 29〉 학습지 이용 아동 과목 분포

단위: %(명)

구분	한글	영어	수학	한자	교구	통합활동	기타	(수)
전체	82.1	9.6	44.8	6.9	7.0	10.2	1.5	(1,071)
아동연령								
0세	-	-	-	-	100.0	-	-	(2)
1세	36.8	2.6	-	-	31.6	44.7	-	(37)
2세	62.3	4.6	12.4	0.8	15.4	25.4	0.8	(131)
3세	84.3	6.6	28.8	0.9	7.0	12.2	1.7	(228)
4세	89.7	9.0	49.7	6.8	4.3	5.3	1.2	(318)
5세	86.2	14.6	67.6	13.8	3.1	4.2	2.0	(355)
기관유형								
어린이집	78.6	7.4	39.3	4.8	7.9	14.0	1.2	(596)
유치원	86.4	12.4	51.8	9.2	5.6	5.2	1.9	(475)
0~5세 전체	79.8	9.3	43.1	6.5	7.6	11.8	1.7	(1,144)
2012	85.1	12.8	45.3	7.6	-	8.4	8.2	(1,006)

나) 이용 이유

영유아 학습지 이용 이유로는 초등학교 선행학습이 41.2%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교육 프로그램 17.1%, 자녀가 원해서 16.4%, 정부 학습지 바우처 지원 12.5% 순이다. 0~5세 전체 영유아와 비교하여 초등학교 선행학습이 다소 높게 나타났다.

〈표 30〉 학습지 이용 이유

단위: %(명)

구분	자녀가 원해서	비용 저렴	정부학습지 바우처 지원	초등학교 선행학습	교육 프로그램	남들이 다 해서	주변부모 권유	기타	계(수)
전체	16.4	3.0	12.5	41.2	17.1	4.4	4.0	1.5	100.0(1,069)
아동연령									
0세	-	50.0	-	-	-	-	50.0	-	100.0(2)
1세	7.9	5.3	-	5.3	55.3	2.6	23.7	-	100.0(37)
2세	23.5	3.0	15.2	12.1	31.8	7.6	3.8	3.0	100.0(131)
3세	19.7	3.9	19.7	23.2	23.7	5.3	3.9	0.4	100.0(228)
4세	16.8	3.1	13.4	43.9	12.1	3.4	4.7	2.5	100.0(317)
5세	12.2	1.7	7.4	65.2	7.9	3.7	1.1	0.8	100.0(354)
기관유형									
어린이집	17.7	4.0	13.7	33.8	20.9	4.0	4.7	1.2	100.0(595)
유치원	14.7	1.7	10.7	50.5	12.4	4.8	3.2	1.9	100.0(474)
0~5세 전체	16.0	3.3	12.1	39.7	18.2	4.5	4.5	1.6	100.0(1,141)
2012	12.0	12.1	-	43.1	18.6	9.7	4.3	0.2	100.0(1,006)

연령이 많아짐에 따라 초등학교 선행학습 비율도 높아지고, 교육프로그램이 좋아서는 연령과 반비례하여 증가한다. 0~1세는 주변 부모 권유가 상당 비율을 차지한다. 기관별로 보면, 유치원은 응답자 중 50% 정도가 초등학교 선행학습이라고 답하였고, 어린이집은 초등학교선행학습과 교육프로그램 순으로 기관별로 학습지 이용 이유에 차이를 보인다.

다) 비용

2013년 조사에서는 학습지 이용 비용을 월평균 교육 비용과 학습지 이용을 위한 교재교구 구입 비용을 별도로 응답하도록 하여 학습지 총 비용을 조사하였다.

학습지 총 이용비용은 월평균 63,400원으로 0~5세 전체 비용과 2012년 조사와 큰 차이가 없다. 아동연령별로는 0세와 87,700원, 1세, 74,700원으로 가장 높고 2세와 3세가 5만원대로 낮다. 연령별로 3세까지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다 다시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표 31〉 학습지 총 비용 평균

단위: 천원(명)

구분	평균	표준편차	최대값	(수)	F/t
전체	63.4	42.9	329.0	(1,071)	
아동연령					
0세	87.7	65.4	141.0	(2)	7.4***
1세	74.7	67.9	316.6	(37)	
2세	53.6	41.1	209.0	(131)	
3세	54.9	41.2	329.0	(228)	
4세	61.8	41.2	291.0	(318)	
5세	72.6	40.7	282.0	(355)	
기관유형					
어린이집	60.3	41.9	316.6	(596)	-2.6**
유치원	67.2	43.8	329.0	(475)	
0~5세 전체	63.1	43.4	329.0	(1,144)	
2012년 조사	61.6	36.9	460.0	(1,006)	

*** $p < .001$

라) 부담 정도

학습지 이용 비용에 대한 부담정도는 과목에 따라 5점 척도로 평균 3.3~4.1점이며, 교구 학습지에 대한 부담이 평균 4.1점으로 가장 높다. 연령에 따른 차이는 한자 학습지 이용에서만 나타났으나, 사례수가 적어 일반화하기는 어렵다.

〈표 32〉 학습지 과목별 부담정도

구분	단위: 점						
	한글	영어	수학	한자	교구	통합활동	기타
전체	3.3	3.7	3.5	3.5	4.1	3.3	3.3
0세	-	-	-	-	4.0	-	-
1세	3.5	5.0	-	-	4.3	3.3	-
2세	3.3	3.7	3.8	4.0	4.1	3.2	3.0
3세	3.2	3.7	3.4	2.0	3.6	3.2	3.0
4세	3.3	3.9	3.6	3.7	4.3	3.5	3.0
5세	3.4	3.5	3.5	3.5	4.2	3.6	3.7
F	1.7	1.8	1.1	3.6*	1.3	0.9	0.9
0~5세 전체	3.3	3.6	3.5	3.5	4.0	3.3	3.3
2012년조사	3.3	3.5	3.4	3.3	-	3.2	3.4

* $p < .05$

4. 아동 1인당 사교육비

〈표 33〉은 어린이집 및 유치원 이용 영유아의 연령별 사교육비 지출 평균 비용을 나타낸다.

사교육비 전체 평균은 82,800원이고, 표준편차는 88,200원이다. 최대 67만원까지 지불한다. 사교육비는 영유아 연령 및 가구소득에 따라 차이가 나타났다. 연령별로 0세 4,200원에서 5세 147,600원까지 분포한다. 가구소득에 따라서도 지출 비용이 정비례한다. 199만원 이하 58,600원에서 500만원 이상 집단에서는 103,500원으로 늘어난다. 어머니의 취업에 따라서는 차이가 없다. 사교육 비용을 지불하는 아동의 월평균 비용은 평균 106,400원이고, 표준편차는 86,500원이다. 전체 아동과 마찬가지로 유아가 영아보다 사교육비 지출이 많다. 연령별로 2세 이하는 5~6만원대로 10만원 미만을 지불하지만 4세 이상은 10만원 이상을 지불한다. 5세는 15만원이 넘는다. 가구소득 수준이 높아지면서 사교육비 지출도 증가한다. 가구 소득이 300만원 미만은 사교육비로 10만원 미만을 지불한다. 모의 취업별 차이는 유의하지 않다.

〈표 33〉 영유아 사교육비 평균

구분	전체 아동				지불 아동		
	평균	표준편차	최대값	(수)	평균	표준편차	(수)
전체	82.8	88.2	670.0		106.4	86.5	(2,253)
아동연령							
0세	4.2	17.7	141.0	(112)	61.2	35.0	(8)
1세	20.4	39.3	316.6	(402)	54.7	47.7	(150)
2세	56.5	49.2	318.0	(615)	68.0	46.2	(514)
3세	78.5	71.5	480.0	(576)	92.5	68.8	(489)
4세	106.7	87.1	561.0	(595)	117.3	84.2	(539)
5세	147.6	112.0	670.0	(596)	158.9	108.2	(553)
F	186.4***				91.0***		

(표 33 계속)

구분	전체 아동				지불 아동		
	평균	표준편차	최대값	(수)	평균	표준편차	(수)
모취업 여부							
취업	81.1	88.6	650.0	(952)	105.8	87.3	(731)
미취업	84.1	88.0	670.0	(1,821)	106.8	86.1	(1,431)
<i>t</i>	-0.8				-0.3		
가구소득							
199만원 이하	58.6	62.2	358.0	(325)	79.2	60.0	(243)
200~249만원	65.4	70.1	389.0	(426)	86.5	68.3	(324)
250~299만원	70.5	71.0	420.0	(507)	90.6	68.3	(397)
300~349만원	84.6	84.0	410.3	(530)	108.7	80.3	(409)
350~399만원	103.1	109.5	670.0	(245)	131.7	107.5	(193)
400~449만원	94.0	91.8	527.0	(414)	117.7	88.1	(329)
450~499만원	103.5	110.8	650.0	(447)	129.4	109.5	(356)
<i>F</i>	16.1***				17.4***		
기관유형							
어린이집	67.7	72.7	561.0	(2,033)	90.0	70.8	(1,527)
유치원	118.9	109.0	670.0	(863)	141.4	104.6	(726)
<i>t</i>	218.5***				-11.9***		
0~5세 전체	78.9	124.0	1,894	(3,630)	116.0	135.3	(2,476)
2012년 조사	80.1	138.6	1,568	(3,421)	125.7	156.3	(2,164)

*** $p < .001$

영유아 연령별 아동 1인당 사교육비를 살펴보았다. 어린이집 이용 영유아의 경우,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 아동을 포함한 전체 아동이 사교육비로 지불하는 비용은 연령에 따라 정비례하며, 4세 이후 10만원 이상으로 늘어난다. 비용을 지불하는 아동만을 보았을 때도 유사한 경향을 보인다.

〈표 34〉 어린이집·유치원 이용 영유아 연령별 아동 1인당 사교육비

구분	전체 아동				비용 지불 아동		
	평균	표준편차	최대값	(수)	평균	표준편차	(수)
어린이집							
전체	67.7	72.7	561	(2,033)	90.0	70.8	(1,527)
0세	4.2	17.7	141	(112)	61.2	35.0	(8)
1세	20.4	39.3	317	(402)	54.7	47.7	(150)
2세	56.5	49.3	318	(611)	68.0	46.2	(511)
3세	80.1	64.5	364	(383)	87.1	62.5	(351)
4세	106.8	79.7	561	(291)	110.7	78.5	(280)
5세	137.7	94.2	437	(234)	142.2	92.3	(227)
유치원							
전체	118.9	109.0	670	(863)	141.4	104.6	(726)
2세	55.4	52.8	110	(4)	70.7	47.4	(3)
3세	75.2	83.8	480	(193)	106.4	81.3	(138)
4세	106.6	93.7	527	(304)	124.4	89.5	(259)
5세	154.2	122.2	670	(362)	170.9	117.0	(326)

단위: 천원(명)

유치원 이용 아동도 어린이집과 동일하게 연령 증가에 따라 사교육비 지출 규모도 커지고, 비용 미지불 아동을 포함한 전체 아동 기준으로 산출하면 4세 이후 10만원 대로 늘어난다. 비용을 지불하는 아동만을 보면, 연령이 하향화되어 3세부터 사교육비 지출이 10만원대로 올라간다.

5. 정책 제언

가. 특별활동·방과후특성화프로그램 운영 기준 설정

현재 어린이집은 특별활동 적정 운영지침이 마련되어 있으나 잘 지켜지지 않고 있고, 유치원의 경우에는 방과후특성화프로그램에 대한 구체적인 운영 지침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어린이집은 특별활동에 대한 운영 기준을 명확하게 하고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유치원은 방과후특성화프로그램 운영 기준을 마련해 나간다.

1) 어린이집 특별활동

첫째, 24개월 미만의 영아 대상 특별활동을 금지한다. 먼저 어린이집의 특별활동 적정 운영지침에 따르면, 24개월 미만의 영아에게는 특별활동을 실시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결과 1세 28.1%, 2세 76.7%가 특별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용 시 특별활동 개수도 1세 2.2개, 2세 2.8개이었다. 따라서 어린이집에서 24개월 미만의 영아 대상의 특별활동 운영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한다.

둘째, 학습위주의 특별활동 과목 운영을 금지한다. 특별활동 과목별 참여비율을 보면, 영어가 79.3%, 음악 51.6%, 체육 67.4%, 미술 30.3%, 교구 28.1%, 한글 7%, 과학 9.3%, 수학 2.9% 순이었다. 특히 영어의 경우 2012년 68.9%에서 10%p 이상 증가하였고, 1세 33.6%, 2세 72%가 참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조기 영어교육은 모국어 발달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외국어 교육으로 인한 스트레스 유발, 이로 인한 영유아의 성장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특별활동 운영 시 영어, 한글, 수학, 과학 등의 학습위주의 교과목 운영을 금지한다.

셋째, 특별활동에 대한 부모선택권을 보장한다. 특별활동 적정 운영지침에 따르면 특별활동 참여 시 부모선택에 따라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조사에서 어린이집 특별활동 의무참여 비율이 전반적으로 40~80% 사이에 분포한다. 특히 카드 활동 87.5%, 영어 63.5%, 체육과 음악 65%, 66.5%로 높았다. 특별활동이 필요하지 않은 아동까지 특별활동에 참여하고 있어 전년도에 비해 특별활동에 참여한다는 비율이 상승한 것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어린이집 특별활동 운영 시 사전에 부모동의서를 의무화하고, 부모의 선택권을 강화한다.

2) 유치원

유치원 방과후특성화프로그램 운영지침을 마련한다. 본 조사에서 방과후특성화프로그램에 참여한다는 비율이 53.9%이고 참여시 2.7개를 실시하고 있다. 과목별 비율을 보면, 어린이집과 마찬가지로 영어가 70.5%로 다수이고, 과학 17.4%, 수학 4.1%, 한글 8.2%로 학습위주의 교과목 실시비율이 어린이집보다 높았다. 또한 의무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는 비율이 영어 54.3%, 통합 55.6%이로 나머지는 30~40% 정도이었다. 비용은 월평균 67,000원으로 연령에 따라 3세 62,800원, 4세 69,100원, 5세 67,500원으로 다소 차이가 있었다. 따라서 유치원 방과후특성화프로그램 운영 시 연령별 개수, 과목, 운영시간, 1인당 비용 상한선 등에 대한 구체적인 운영기준을 마련한다.

나. 자녀교육에 대한 부모의 의식 변화

영유아 사교육이 좀처럼 줄어들지 않는 이유는 부모의 자녀교육에 대한 과도한 기대와 방향성의 상실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이는 우리 사회가 학력 위주의 사회라는 구조적인 특성과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에서 기인한 것이다. 본 연구결과에서 사교육 이용 이유로 차별화된 교육, 자녀의 재능소질 개발, 초등학교 선행학습, 우수한 교육프로그램 등의 이유가 주를 이룬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그러나 영유아들이 살아가야 할 미래 사회는 현재 우리가 예측 가능한 능력 이외의 능력을 요구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와 같이 부모가 선택한 백화점식의 교육 경험을 강제당하는 형태의 사교육으로는 불가능하다.

따라서 자녀를 미래사회에 유능한 시민으로서 성장시킬 수 있는 방법과 그 방향성, 영유아의 발달과 요구에 기초한 사교육의 효율적 선택에 대해 미디어나 교육을 통한 다양하고 지속적인 학부모의 의식 개선이 필요하다. 즉, 어린이집 및 유치원 이용 영유아 부모 대상의 부모교육을 강화해 나간다.

참고문헌

- 서문희·양미선·손창균(2012). 영유아 교육보육 비용 추정 및 대응방안 연구. 육아정책연구소.
- 서문희·조애저·김유경·최은영·박지혜·최진원(2004). 2004년 전국보육실태조사. 여성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신의진(2001). 과잉조기학습이 어린이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 대한어린이교육협회, 춘계회원연수자료집. 25-29.
- 우남희·김현신·백혜정(2005). 조기 사교육 경험이 있는 유아들의 문제행동에 관한 연구. 한국영유아보육학회지, 43(12), 23~43.
- 홍은자(2001). 어머니의 성취압력과 학원, 학습지 이용이 유아의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회 청구논문.
- OECD(2012). Family Database.



2013년 제6차 육아지원정책 포럼

토론

염지숙 | 건국대학교 유아교육학과 교수

김혜금 | 동남보건대학교 보육과 교수

“어린이집 및 유치원 이용 영유아의 사교육 실태” 연구에 대한 토론

- 누구를 위한, 무엇을 위한 영유아 사교육인가?

염지숙(건국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지난 12월 초, 스웨덴 일간지 스벤스카 더그블라뎃(SvD)에 한국교육을 분석한 기사가 실렸다고 한다. 수학, 읽기, 과학 등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어 학업성취도가 세계 최고인 한국학생들이 어떻게 공부하는가가 궁금했던 모양이다. 이 기사의 요지는 하루 12시간에서 많게는 17시간까지도 공부하는 한국 고등학생들의 일상을 소개하면서, 한국의 교육에서 벤치마킹 할 부분도 많지만, 주입식 공부로 학생들이 미래를 꿈꿀 여유가 없는 한국식 교육을 절대로 롤모델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다. 이에 더하여, 엄마들의 학구열과 치맛바람도 한 몫을 한다는 것도 빼놓지 않았다.

세계 어디에도 없는 한국인들의 이러한 비정상적인 학구열, 학벌, 학력주의가 우리 아이들로부터 영유아기와 청소년기를 빼앗고 있다. 영유아 사교육 실태가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양미선 박사의 이 연구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경각심을 불러일으킨다. 이 토론문에서는 양미선 박사의 연구결과를 중심으로 몇 가지 근본적인 문제를 짚어보고, 영유아 사교육의 심각성을 막기 위해 우리가 노력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해 보고자 한다.

1. 영유아 사교육의 시작 연령과 참여 과목 수에 따른 영유아의 놀이할 권리 박탈

연구결과에 의하면, 어린이집 영아 특별활동 참여가 51.9%, 유아는 무려 90%, 유치원 유아의 방과 후 특성화 프로그램 참여는 53.9%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는 아마 어린이집에 다니는 유아들이 기관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서이기 때문으로 보인다. 여기서 사실 숫자의 차이보다는 1, 2세 영아를 대상으로도 특별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더하여 특별활동에 참여하는 영아 가운데 1세가 평균 2.2개, 2세가 2.8개, 그리고 50%가 넘는 유아들이 3개 또는 4개의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방과 후 특성화 프로그램도 다르지 않아 참여 유아들이 평균 2.7개의 프로그램을 하고 있다.

발표문에서 연구대상 영유아 가운데 학원, 개인그룹지도, 학습지를 하는 영유아가 얼마나 되는지에 대한 통계결과는 나타나 있지 않지만, 학원이나 학습지를 0세부터

시작하고 있으며, 개인·그룹지도도 1세부터 시작하고 연령이 높아질수록 사교육 이용률은 높아지고 있다. 이미 오래 전부터 영유아 사교육의 시발점은 산후조리원이었으며, 사교육을 부추기는 주범은 신문 매체나 인터넷 매체 등이었다는 사실을 유아를 둔 어머니의 경험으로부터 근래에 알게 되었다. 이렇게 학원, 학습지, 교재교구의 이용 대상 연령이 낮아지는 것은 우리 아이 만큼은 최고가 되기를 바라는 부모의 욕심과 안하면 우리 아이만 뒤처질 것 같은 부모의 불안심리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이다. 결국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사교육은 부모, 유아교육기관의 교사, 원장을 비롯한 성인들의 결정이다. 아이들이 정말로 학원에 가길 원하고, 학습지 하기를 원하는지 묻지조차 않았을지도 모른다. 아이들은 그저 다른 아이들이 하니까, 어른들이 하라고 하니까 당연히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을지도 모른다. 아무 의미도 모르면서, 학습지에 적힌 순서대로 그림을 그리는 한자 공부,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따라하는 영어 노래가 아이들에게 얼마나 의미 있는 일일까?

영유아기에 놀이가 중요하고, 아이들은 놀면서 배우고 자란다는 것을 우리 모두 알고 있다. 영유아기에 필요한 언어, 수, 과학에 대한 개념이나 지식도 놀이를 통해 가장 잘 습득할 수 있다는 것이 여러 학자들의 주장이다. 그런데 사교육을 2개 3개씩 하는 아이들은 놀이 할 시간이 없다. 사교육으로 인해 아이들은 놀이 시간과 놀이할 권리를 빼앗긴다. 영유아기는 인간의 생애에서 다시 오지 않는 중요한 시기이다. 영유아가 이 중요한 시기를 어떻게 보내도록 해야 하는가를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한다. 사교육이 아이들을 행복하게 만드는가? 우리는 아이들의 목소리를 진정으로 들으려고 노력하고 있는가? 그들의 생각을 존중하는가? 우리가 아이들이 행복할 권리를 빼앗는 것은 아닌가? 우리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들을 던져 보고 영유아 조기 사교육의 부정적 측면을 정확히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2. 영유아 사교육 지출비용에 의해 야기되는 가정경제 붕괴와 사회적 불평등의 심화

이 연구의 결과에 따르면, 어린이집 및 유치원 이용 영유아의 연령별 사교육비 지출 비용은 평균 82,800원이고 최대 67만원까지 지출한다. 가구 소득에 따라 지출 비용이 정비례한다. 학원이나 교재교구, 학습지에 과도한 비용을 소비하는 것은 부모에게 일시적 만족감을 가져다줄지는 몰라도, 새로운 학습지, 프로그램, 교재교구가 나오면 중독처럼 새로운 것에 또 비용을 지출하게 된다. 저소득층 가정의 어머니들은 육아에 전념하지 못하고 사교육비를 마련하기 위해 부업을 하고, 이것이 가정 내의 교육 붕괴, 심하면 가정 붕괴로 이어지기도 한다. 저소득층 부모는 영유아기 사교육을 통해

자신들의 빈곤을 대물림해주지 않기를 희망하고, 고소득층 부모는 자신의 부를 대물림해 줌으로써 사회적으로 불평등한 계층구조를 재생산해 내고자 하는 욕망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교육을 통해서 사회적 계층의 격차와 불평등이 완화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들이 심화되는 현상을 낳게 되는 것이다.

3. 초등학교를 위한 선행학습 목적의 영유아 사교육 교과목

이 연구의 결과는 어린이집 영유아, 유치원 유아 모두 영어 과목 참여 비율이 거의 80%에 가깝게, 그리고 70%가 넘을 정도로 다른 교과목에 비해 월등히 많았음을 보여 준다. 학원이나 시간제 교육은 주로 예체능이 많았지만, 개인·그룹지도와 학습지는 영어, 수학, 한글과 같은 인지적 학습을 위한 교과목 이용 비율이 높았다. 사교육의 주요 교과가 한글, 영어, 수학이라는 사실은 사교육의 중요 목적이 선행학습에 있다는 것을 나타내 준다. 학습지의 경우 초등학교 선행학습을 위한 목적이 41.2%라는 연구 결과도 이를 명확히 보여준다. 여러 연구들(우남희, 2004; 서유현, 2009; 신의진, 2004)이 이미 선행학습에 중점을 둔 조기 사교육의 부작용을 밝히고 있다. 이 연구들은 영유아기 사교육으로 인해, 영유아는 사회, 정서적 문제, 무기력감, 공격적 행동, 위축, 우울, 불안 등의 문제를 보인다고 보고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계획된 내용을 한정된 시간에 습득하는 사교육을 받은 영유아는 자기주도적, 자율적, 독립적 학습의 능력을 키울 기회를 박탈당한다. 그 결과 아이들은 자신감이 없고 수동적인 태도를 보이며,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도 키우지 못하게 된다. 궁극적으로 조기 사교육은 인지, 사회, 정서, 창의성, 신체, 인성 등 영유아기에 발달해야 할 기초적 발달과 전인으로서의 성장을 방해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4. 득보다 실이 많은 조기 영어교육

조기 영어교육에 대해서는 학자들 마다 의견이 분분하여 이 토론문에서 정확한 연구결과를 전할 수 없다. 외국어 교육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하는 학자들과 모국어가 완성된 다음에 외국어를 습득해야 모국어가 흔들리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학자들로 의견이 갈린다. 분명한 것은 유아기에 그것도 외국어를 자연스럽게 습득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닌 우리나라에서 EFL로 외국어를 배우는 경우 영유아들이 받는 스트레스는 엄청나다라는 것이다.

영어 사교육은 인지적 선행학습의 성격을 띠고 있는 것도 문제이지만,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영어 사교육을 받을 경우 개별교육이나 소집단 활동보다는 거의 대집단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유아교육에서의 교수-학습 원리가 무시될 가능성이 큰 것도

문제다. 이러한 문제들은 영유아 사교육이 영유아교육의 근본을 무시하고 부정함으로써 유아교육과 보육의 정상화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글로벌 사회를 살아갈 우리 아이들에게 영어가 중요한 재산이라는 것은 인정하나, 반면에 아이들이 가질 직업과 커리어에 영어가 반드시 필요하거나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경우가 얼마나 될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영어 사교육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그 시기를 조금 늦추고 대안적인 방법을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5. 영유아 사교육 문제 해결을 위한 제언

양 박사님이 정책적 제언으로 제시한 어린이집 특별활동 적정 운영지침 준수 여부에 대한 엄격한 관리와 유치원 방과 후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 기준 마련, 그리고 자녀교육에 대한 부모의 의식구조 변화에 대해 전적으로 동의한다. 특히 연령별 참여 과목, 개수, 운영시간, 1인당 비용 상한선 마련 등 양 박사님이 제시한 기준이 반드시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에 더하여 몇 가지 덧붙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유아교육의 공공성을 확보하는 일이다. 유아교육은 역사적으로 사립기관을 중심으로 발전해 왔기 때문에 다른 학년 학교보다 국가와 정부의 구속력이 상대적으로 약하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유아 사교육을 줄이려면 유보통합과 함께, 유아교육의 공공성 확보에 대한 국가의 노력과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 사립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도 종일반 교사 제도를 활용하여 특별활동이나 방과 후 특성화프로그램을 운영하기보다는 기관의 특성과 실정에 맞는 오후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재정적 지원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므로 국가적 차원에서 과감한 정책적 결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초등교육의 정상화이다. 초등학교 입학 전 사교육, 특히 학습지 이용의 가장 큰 이유는 선행학습이었다. 이는 자신의 아이가 선행학습을 하지 않으면 다른 아이들에게 뒤처질 것이라는 부모의 불안 심리와 교사가 아이들의 선행학습을 전제로 가르칠 것이라는 학교와 교사에 대한 부모의 불신감을 동시에 보여주는 것이다. 학원에 다니지 않고 학교에서 선생님께서 배우는 내용만으로도 아이들이 충분히 학교 교육을 따라갈 수 있어야 한다. 그러려면 교사가 충실히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며 일선에서 너무 수준이 높다는 평을 듣는 초등수학과 같은 일부 교과목의 교육과정 조정도 필요할 것이다. 아이들의 발달 수준보다 더 높은 수준의 지식을 습득해야 할 때 아이들은 그 교과가 어렵고 지루하게 느낀다. 한국에서 조기유학을 간 학생들이 영어를

몰라도 수학은 자국의 아이들보다 월등하게 잘 하는 것은 우리나라 교육과정 수준이 외국 교육과정 수준보다 높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말해주고 있다.

초등교육의 정상화를 통해, 학교 교육만으로 아이들이 이 시기에 필요한 지식과 태도를 습득하고 실천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셋째, 영유아 사교육과 관련된 연구 수행이다. 영유아 사교육과 관련된 보다 정확한 정보를 위해 학자들이 그리고 육아정책연구소처럼 공신력 있는 국책연구소에서 영유아 사교육과 관련된 실제적인 연구를 집중적이고 지속적으로 수행해야 한다. 연구를 통해 사교육이 필요한 영역과 필요하지 않은 영역, 사교육을 시켰을 때 오히려 영유아에게 해가 되는 영역, 필요하다면 그 범위(시간, 교과, 난이도 등)가 어디까지며, 그 이상을 넘어서었을 때 야기되는 문제들을 데이터에 의해 제시함으로써, 사교육 폐해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켜 부모의 의식 변화를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정확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정책 제언도 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연구결과를 공유하고 영유아 사교육의 문제와 대안을 공론화시킬 수 있는 담론의 장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고 확산시켜나갈 필요가 있다. 영유아 사교육의 폐해를 매체를 통해 알리고 토론회나 포럼 등을 통해 알림의 장을 마련하는 것이다.

다섯째, 부모의 의식변화를 위해 지역사회의 여러 기관이 협력하고 지원해야 한다. 사실 부모가 육아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정보원은 생각보다 많지 않다. 그러다보니 많은 부모가 짧은 시간에 쉽게 정보를 얻고 공유할 수 있는 인터넷 매체에 의존한다. 부모가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지역사회의 다양한 기관, 즉 대학, 병원, 보건소, 건강가족지원센터, YWCA 등이 그 중심 역할을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부모들이 자녀 교육에 대한 정보를 컴퓨터나 이웃 부모로부터 얻기 보다는 지역사회에서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제공되는 강연, 토론회, 자조적 모임 등을 통해 얻을 수 있어야 하고, 교수, 의사, 교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은 자신의 재능을 기부함으로써 지역사회에 공헌할 수 있을 것이다.

여섯째, 영유아들에게 꼭 필요한 동화책, 놀잇감, 교재교구 등을 비싼 가격으로 구입하기 보다는 지역도서관을 이용하거나, 일부 지역에서 운영되고 있는 장난감 도서관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과 홍보가 필요하다. 자녀들이 자라서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물품을 저렴한 가격에 사고팔거나, 교환할 수 있는 지역 장터를 여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대안은 고가의 교재교구를 구입하거나 아이들을 고가

의 학원에 보내는 부모에게는 해당이 되지 않는다. 다만 이러한 운동이 확산되면서, 일부 고소득층 부모의 의식이 변화되기를 희망하는 것이다.

부모들이 영유아 사교육을 중요하게 생각하면 할수록 유아교육 전문가인 유아교사들은 현장에서 어려움을 겪고, 아이들에게 더 좋은 경험을 제공하고자 하는 의욕도 상실된다. 부모는 자녀를 왜 유아교육기관에 보내는가? 사교육에 목숨 건 부모들은 유아교사보다 사교육을 신뢰하는 것이 아닌가?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의 경험보다 아이들에게 사교육이 더 중요하고 사교육을 통해 더 잘 배운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닌지, 부모 스스로가 판단해야 할 문제다.

참고문헌

우남희(2004). 아동의 권리와 한국의 조기교육. 아동권리연구, 8(2), 189-207.

서유현(2009). 뇌기반 적기 교육과 영재 교육. 수학교육학회 국제수학영재교육 세미나 프로시딩, 1-10.

신의진(2004). 과잉조기 인지교육이 유아의 성장발달에 미치는 영향. 교육인적자원부

어린이집 및 유치원 이용 영유아의 사교육 실태에 대한 토론

김혜금(동남보건대학교 보육과 교수)

어린이집 및 유치원을 이용하는 영유아의 사교육 실태에 대해 조사한 본 연구는 연구자도 밝힌 것처럼, 정부의 무상보육비·교육비 지원에 의해 각 가정의 영유아 1인당 총 보육비·교육비는 2009년에 비해 다소 낮아졌지만 특별활동비는 2배 이상 증가하는 기현상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부모들은 일정 비용을 자녀에게 투자하며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보육·교육과정만으로는 만족하지 못함을 시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우리나라 부모들의 사교육에 대한 관심과 투자는 오래전부터 시작된 것으로 새삼스러운 일은 아니다. 196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 동아일보에 게시된 광고 분석을 통하여 신문광고에 나타난 아동의 사회적 이미지를 고찰한 김혜금(2012)의 연구에서도 196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 꾸준히 학습과 관련된 아동 관련 광고는 어린 연령부터의 조기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특히 1990년대 이후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학습 관련 광고가 비약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영유아 시기보다는 초등학교 시기 이후 우리나라 아동은 정규 교육기관보다 사교육에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하고 연령이 증가할수록 사교육에 대한 투자는 대학입시와 관련하여 필수불가결한 것으로 인식되기도 한다. 문제는 사교육의 시기가 더 어린 시기로 저연령화하고 있고 고소득 가정일수록 더 많은 비용을 사교육에 지출한다는 점이다(조성연, 김혜금, 신혜원, 2009).

백화점 문화센터에 가보면 0세아를 대상으로 하는 수많은 프로그램이 성행하고 어린 아기를 등에 업거나 안고 프로그램에 자녀를 데리고 참여하는 엄마들을 쉽게 볼 수 있다. 어린 아기에게 무엇을 가르치려고 하는가 하는 의구심이 들기도 하지만 어머니들이 대단해보이기도 한다. 사실 영유아의 발달 수준에 적합한 다양한 놀이 활동이 영유아의 제 발달에 도움이 될 수 있기도 하지만 문화센터를 비롯한 검증되지 않은 수많은 사교육기관의 프로그램들이 영유아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사회 및 국가에서 관심을 가지고 적절한 개입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다시 말해서 난립해 있는 사교육 기관의 프로그램 질이 관리되지 못하고 있으며 부모들은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에 많은 비용을 투자하고 이러한 기관에서 이루어지는 사교육이 정규교육기관의 교육보다 더 우수하다고 오인하기도 하기 때문에 영유아의 건강한 성

장과 발달을 위해 영유아 시기의 사교육을 제한하거나 사교육 기관의 질을 관리하는 방안을 국가에서 검토해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혹자는 자녀의 사교육에 대해 부모들이 자유롭게 선택하고 결정한 일에 대해 왜 국가나 사회에서 개입해야 하느냐는 의문을 제기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런데 영유아 시기의 사교육에 대해 연구한 많은 연구들(우남희, 2004; 우남희·백혜정·김현신, 2005)이 사교육의 장점보다는 부작용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이른 시기의 과도한 사교육은 영유아에게 학습에 대한 스트레스를 주고 특히 발달 수준에 적합하지 않은 활동은 영유아의 정신건강에 적신호를 보내기도 한다. 한편으로는 소득 수준에 따른 사교육의 양 및 비용에서의 차이는 사회적 위화감을 조성하고 부익부 빈익빈 현상으로까지 해석되는 경향 또한 나타난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이루어지는 사교육 즉 특별활동이나 방과후활동은 일률적으로 막는다고 해서 영유아의 사교육비가 감소하거나 부모들의 사교육 열기가 완화될 것이라는 생각은 들지 않는다. 부모들의 과도한 교육열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대신 다른 기관에서 제공하는 사교육을 찾게 할 것이다.

사교육비 증가의 핵심적인 원인은 부모들이 정부의 무상보육·교육은 영유아 누구에게나 기회가 주어지는 보편적, 기본적인 것으로 간주하고 무한경쟁사회에서 자녀들이 뒤처지지 않고 나아가 경쟁우위를 가지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교육, 입도선매식 조기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서 비롯된다고 본다. 따라서 지나친 경쟁을 지양하고 개개인의 존엄성과 인성, 개성 그리고 상호부조의 공동체적 정신과 삶을 중시하는 인간지향적 사회문화 조성이 선행되어야 사교육비 증가를 근본적으로 막을 수 있다고 본다. 왜냐하면 타인과의 경쟁에서 앞서기 위해서, 혹은 남보다 더 잘 살기 위해서 사교육비 지출은 미덕이며 자녀의 미래를 위한 투자라고 여기는 분위기에서 아이의 전인교육을 위해 특별활동이나 사교육을 안하거나 안하도록 권장하는 태도나 의견, 교육방식은 경쟁지향적 시스템인 현재의 교육제도, 경제체제에 배치되는 이윤배반적 행동 또는 위선적 행동으로 치부되거나 사회의 추세에 뒤떨어지는 교육방식으로 왜곡되거나 부모의 경제적 무능력을 입증하는 것으로 오해될 수 있기 때문이다.

연구자는 정책제안으로 어린이집의 경우에는 24개월 미만의 영아 대상 특별활동을 금지하고 학습 위주의 특별활동 과목 운영을 금지하며 특별활동에 대한 부모선택권을 강화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유치원의 경우에는 유치원 방과후특성화프로그램 운영 지침을 마련하고 유치원 방과후특성화프로그램 운영 시 연령별 개수, 과목, 운영시간, 1인당 상한선 등의 구체적인 운영기준을 마련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교육의 효율적 선택에 대한 학부모 의식 개선이 필요함을 언급하였다. 그런데 현재 유보통합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데 정부에서는 단계적으로 통합을 추진하

여 2016년에는 유보통합을 이루겠다는 의지를 발표하였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다면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사교육 관련 정책 또한 동일하게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즉 유치원과 어린이집 모두 특별활동이나 방과후특성화프로그램을 하지 않도록 하거나 동일한 내용으로 제한을 두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특별활동 혹은 방과후특성화프로그램으로 불리우는 명칭 또한 통일되게 해야 할 것이다.

부모들의 사교육에 대한 관심과 기대, 열의를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사교육 근절 정책으로 단기간에 변화, 개선되도록 하는 효과를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되기도 하지만 어린이집과 유치원에서 정규 프로그램 외에 특별활동이나 방과후특성화프로그램을 실시하는 이면에는 재정적 어려움도 한 몫을 하고 있다고 본다. 따라서 현실적인 표준보육비·표준교육비 산정과 연계한 적정 보육비·교육비를 책정하여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과외의 특별활동을 실시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도록 해야 하며 무엇보다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질을 높여서 부모들이 유아교육기관의 교육 및 보육만으로 영유아의 발달과 성장이 잘 이루어질 수 있다고 느끼게 해야 한다. 즉, 표준보육과정 및 누리과정의 지속적 교육과 함께 현장의 교사들이 영유아의 발달 수준에 적합한 다양한 활동을 계획, 실시하고 평가할 수 있는 능력이 신장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교사, 특히 보육교사들에게 근무 중 휴식 및 연구 시간이 제공되어야 한다. 종일제로 운영되는 어린이집의 경우 보육교사가 하루 종일 영유아들을 지도하기 때문에 보육의 질이 낮아질 염려도 있지만 안전사고의 위험 또한 높다. 종일제로 운영되는 어린이집에 반별로 보조교사를 지원하여 담임교사의 업무 과중을 덜고 영유아와 교사간 상호작용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다.

한편으로 유아교육기관에서 사교육에 대한 부모의 요구를 무시하기 어렵다면 2007년부터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어린이집 우수프로그램 공모전을 더욱 강화하여 발굴된 우수프로그램을 특별활동 및 방과후특성화프로그램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다. 즉, 각 지자체 및 시·군·구 보육정보센터에서 실시하고 있는 프로그램 공모전에서 발굴된 많은 프로그램들을 아이맘카페 등 다양한 육아지원센터에서 어머니와 아이가 함께 하는 프로그램 등에 적용하는 방안으로 검토해볼 수 있을 것이다. 검증되지 않은 사설 기관의 프로그램보다는 공모전이나 정부에서 지원받아서 개발된 특별활동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것이 프로그램을 사장시키지 않으면서 영유아의 발달 수준에 적합한 양질의 프로그램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잇점이 있기 때문이다. 이들 프로그램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교육·연수프로그램을 마련하여 특별활동 강사를 양성하고 일정 자격을 갖춘 강사들이 특별활동 및 방과후특성화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김혜금(2012). 신문광고 내 아동의 사회적 이미지: 196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 동아일보 광고 분석. 한국보육지원학회지, 8(3), 25-51.
- 조성연·김혜금·신혜원(2009). 학령전 아동의 고액학원 이용에 대한 어머니의 인식 조사와 이를 통한 보육정책제안: 서울과 경기도를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 47(9), 1-14.
- 우남희(2004). 아동의 권리와 한국의 조기교육. 아동권리연구, 8(2), 189-207.
- 우남희·백혜정·김현신(2005). 조기 사교육이 유아의 인지적, 정서적, 사회적 발달에 미치는 영향 분석: 유치원 원장들의 인식을 중심으로. 유아교육연구, 25(1), 5-24.